

“유엔인권이사국인 中, 北 인권 개선 위해 영향력 행사를”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

강제북송진상구명국민운동본부, 에스더기도운동 등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이 17일 오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연합은 이날 발표한 상명에서 “지난 10월 15일 국제적인 NGO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 정부가 2024년 이후 최소 406명의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송환시켰다고 발표했다”며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체불 임금에 대한 시위가 있은 이후 2024년 1월 108명의 노동자들이 북한 정부에 체불 임금으로 보내졌고 동년 4월에는 인신매매 피해 여성 212명과 함께 60명의 탈북민들이 강제송환됐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2023년 10월 9일 한 저우 아시안게임 끝난 다음 날 군사작전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최 측 제공

수 있다”고 했다.

국민연합은 “2014년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은 조직적으로 고문, 성폭력, 강제노역, 강제질종, 비인간적인 구금 환경 등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포고령을 채택했다”며 “그러므로 북한 주민들은 탈출 등기나 사전 박해 여부와 무관하게 무단 국경 이탈 행위 자체로 난민 지위를 부여 받을

경고했다”고 했다.

이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25년 9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십여 년간 송환된 사람들은 자의적 고문, 고문, 부당한 대우, 강제실종, 성폭력 및 젠더폭력 등 심각한 인권탄압을 당했다’고 밝히면서 각국 정부가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하고, 심각한 인권탄압을 받을 실질적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일관되게

강제송환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이들은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 의정서 그리고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이다. 박해나 고문의 실질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국가로는 누구도 강제송환하지 않을 법적 의무가 있다”며 “제다가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이며 인권이사회에 이사국으로서 인권 문제 개선에 있어서는 어느 국가보다도 솔선수범해야 하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라고 했다.

국민연합은 “중국 정부가 국제법을 무시하며 반인도적 범죄에 조력한다면 세계인들은 중국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세계인들은 중국을 보이콧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중국인들은 반문명국가 국민으로 오명을 쓰게 될 것이고 중국은 유엔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원을 보장하라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북한정권에 자국민에 대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촉구했다.”

김진영 기자

“복음 처음 들어온 인천에서 민족복음화 새 불길 타오를 것”

민족복음화 인천본부 발대식 및 대표본부장 취임감사예배 열려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총재 이태희 목사)가 17일 인천광역시 서구 316교회(담임 박용배 목사)에서 인천광역시 본부 발대식 및 대표본부장 취임감사예배를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2027년에 예정된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를 향한 전국 조직 확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대표본부장 박용배 목사, 종괄본부장 라건국 목사, 상임본부장 박병철·박홍부·이준남·홍철웅·김선강·한정관 목사, 그리고 사무총장 김영돈 목사가 총재 이태희 목사에게서 취임패를 받았다.

대표본부장으로 취임한 박용배 목사는

“하나님께서 인천을 택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다. 140여 년 전 이 땅 인천 제물포항으로 복음이 처음 들어와 한국교회의 역사가 시작됐다”며 “이제 다시 그 인천에서

‘민족복음화의 새로운 불길’이 타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섬리요, 역사의 회복’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제 인천본부는 민족과 열방을 향한 복음의 전진기지로 세워질 것”이라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정치적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강조했다.

총괄본부장은 라건국 목사는 “복음의 생명력이 다시 한반도와 열방으로 확산되도록 모든 교회와 지도자들이 하나 되어 기도의 무릎을 깊겠다”며 “성령의 대부흥운동이 전국으로, 더 나아가 세계로 확산되기를 소망한다는 이 믿음 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예배에서 ‘네 민족을 구원하라’(사도행전 1:8)는 제목으로 설교한 이태희 목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는 “우리가 바울 사도의 심령만 가지면 민족복음

화는 꼭 우리 시대에 이뤄질 줄 믿는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가능할 것”이라며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그것이 시작되는 역사적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오늘날 소명의식을 갖고 사명감에 불타는 목회자들을 찾기가 힘들어졌다. 부디 오늘 취임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철저한 소명의식과 불타는 사명감을 갖고 인천을 복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2027년까지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제 목표다. 우리 모두 합심해서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예배에선 라건국 목사(종괄

본부장)의 인도로 박병철 목사(상임본부장)가 기도했으며, 한정관 목사(상임본부장)가 성경을 봉독했다. 설교한 이태희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뒤 김영돈 목사(사무총장)의 사회로 취임식을 진행했다.

취임식은 취임패 증정, 박용배 목사(대표본부장)의 감사인사, 김병호(연구원장·부총재·양준원(성회 사무총장)·손재경기획본부장)·장순직(상임부총재)·이성화(민복 부천본부 대표본부장)·노희석·예성·증경총회장, 서울강동지역교회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의 축사 및 격려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는 1907년 평양대부흥 120주년과 1977년 민족복음화대성회 50주년을 기념하는 성회로, 현재 사단법인 민족복음화운동본부(총재 이태희 목사)가 중심이 돼 준비되고 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는 1907년 평양대부흥에서 시작됐다”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와 성령운동으로 불붙기 시작한 평양대부흥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한국교회를 일제의 어둠에서 깨웠다. 모든 백성들과 선각자들이 일어나 대한독립을 외쳤다”고 했다.

이들은 “973년 ‘밸리 그雷함 서울전도 대회’는 한국교회 역사상 일일 100만 명이 모인 큰 집회였다”고 했다.

이어 “1974년, 한국대학생선교회 대표 김준곤 목사와 세계대학생총연맹 빌 브라이트 박사와 함께 여의도광장에서 ‘엑스플로 74 전도대회’를 개최했다”며 “하루 평균 130만 명이 모여 청년 복음화를 위해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며, 사명을 다짐했다. 나라의 미래인 수많은 청년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77민족복음화대성회”는 하루



민족복음화 인천본부 발대식 및 대표본부장 취임감사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인 이태희 목사(왼쪽)가 인천 본부 대표본부장인 박용배 목사(오른쪽)에게 취임패를 전달한 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단일 인파 중 가장 많은 180만 명까지 모여들었고, 연인원은 75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성회를 통해 2만5천 명이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의 복음화

김진영 기자

수영로교회 50주년 기념
전국청년사역 컨퍼런스 》3면

선교사를 위한 책 한 권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7면

총괄본부장으로 취임한 박용배 목사는

“하나님께서 인천을 택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다. 140여 년 전 이 땅 인천 제물포항으로 복음이 처음 들어와 한국교회의 역사가 시작됐다”며 “이제 다시 그 인천에서

‘민족복음화의 새로운 불길’이 타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섬리요, 역사의 회복’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제 인천본부는 민족과 열방을 향한 복음의 전진기지로 세워질 것”이라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정치적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강조했다.

총괄본부장은 라건국 목사는 “복음의

생명력이 다시 한반도와 열방으로 확산되도록 모든 교회와 지도자들이 하나 되어 기도의 무릎을 깊겠다”며 “성령의 대부흥운동이 전국으로, 더 나아가 세계로 확산되기를 소망한다는 이 믿음 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예배에서 ‘네 민족을 구원하라’(사

도행전 1:8)는 제목으로 설교한 이태희 목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는 “우리가 바울 사도의 심령만 가지면 민족복음

화는 꼭 우리 시대에 이뤄질 줄 믿는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

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가능할

것”이라며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그것이

시작되는 역사적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오늘날 소명의식을 갖고 사

명감에 불타는 목회자들을 찾기가 힘들

어졌다. 부디 오늘 취임하시는 모든 분들

이 철저한 소명의식과 불타는 사명감을

갖고 인천을 복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2027년까지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

하는 것이 제 목표다. 우리 모두 합심해서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예배에선 라건국 목사(종괄

본부장)의 인도로 박병철 목사(상임본부장)가 기도했으며, 한정관 목사(상임본부장)가 성경을 봉독했다. 설교한 이태희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뒤 김영돈 목사(사무총장)의 사회로 취임식을 진행했다.

취임식은 취임패 증정, 박용배 목사(대

표본부장)의 감사인사, 김병호(연구원장·

부총재·양준원(성회 사무총장)·손재경기

획본부장)·장순직(상임부총재)·이성화(민

복 부천본부 대표본부장)·노희석·예성·증

경총회장, 서울강동지역교회연합회 대표

회장 목사의 축사 및 격려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는 1907년 평양대부흥 120주년과 1977년 민족복음화대성회 50주년을 기념하는 성회로, 현재 사단법인 민족복음화운동본부(총재 이태희 목사)가 중심이 돼 준비되고 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한국교회 부

흥의 역사는 1907년 평양대부흥에서

시작됐다”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와

성령운동으로 불붙기 시작한 평양대부흥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한국교회를

일제의 어둠에서 깨웠다. 모든 백성들과

선각자들이 일어나 대한독립을 외쳤다”

고 했다.

이어 “973년 ‘밸리 그雷함 서울전도

대회’는 한국교회 역사상 일일 100만 명

이 모인 큰 집회였다”고 했다.

이어 “1974년, 한국대학생선교회 대표

김준곤 목사와 세계대학생총연맹 빌 브

라이트 박사와 함께 여의도광장에서

‘엑스플로 74 전도대회’를 개최했다”며 “하

루 평균 130만 명이 모여 청년 복음화를

위해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며, 사명을 다

짐했다. 나라의 미래인 수많은 청년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77민족복음화대성회”는 하루

단일 인파 중 가장 많은 180만 명까지 모

“AI 시대의 기독교 교육, 진리 자체이신 예수에 중점을”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AI와 기독교 교육 접점 모색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회장 원신 애)가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교 회(답임 이기용 목사)에서 ‘AI시대, 기독교교육 현장의 할루시네이션에 관한 성찰과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2025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AI 할루시네이션은 AI 모델이 생성하는 잘못된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결과를 의미한다.

◆기독교인을 위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먼저 ‘기독교인을 위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김수환 박사(총신대)는 “인공지능 기술은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의존도를 높이고, 인간이 소외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AI가 비기독교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교육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기독교인을 위한 AI 교육의 핵심 요소로 ▲성경과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한 인공지능의 개념과 윤리 교육 ▲영적 분별력 강화를 위한 내용 ▲하나님의

통치와 관계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방향 등을 제시했다. 특히, AI를 신앙적 관점에서 신실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기독교 교육에서의 AI 활용은 구속받은 학습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AI 할루시네이션과 그리스도 안에 서의 창조성 회복

앞으로 AI가 생성하는 ‘할루시네이션’에 대해 “AI가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왜곡될 수 있다.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는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창조성’을 가지 고 창작물을 만들어야 한다”며 “하나님이 맡기신 창조세계를 돌보는 데 인공 지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기시키며, AI 시대의 기독교 교육은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전했다.

◆AI 시대에도 ‘윤리적 자율성’과 ‘타자를 향한 연대’ 교육의 핵심

나영신 박사는 “AI 시대에도 여전히 기독교 교육의 핵심 가치인 윤리적 자율성과 타자를 향한 연대가 중요하다”며 “기독교 교육학이 사회적 이슈와 약자들을 위한 배려에 집중해야 한다”며 기독교인으로서 공동체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나 박사는 “기독교 교육은 사회 속에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사회를 밝고 안전하며 희망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독교 교육, 인간이 자율적 주체로 서도록 돋는 윤리적 방파제

김은하 박사(서울신대)가 “칸트의 비판 정신과 기독교적 교양교육”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AI, 기독교 교육에 심각한 도전인 동시에 중요한 기회

오경환 교수는 “AI의 발전이 기독교 교육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는 동시에 중



2025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참석자 사진.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하는 데 있다”며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최여하는 엄중한 도덕적 명령이자 교양교육 고선의 합당한 희망을 추구하는 전인적 이 지향해야 할 핵심 사명”이라고 했다.

인격체로 인간을 완성하는 데 있다. 이는 아울러 “교양교육은 유한한 인간이 타

‘교육을 통하여 미래의 좀 더 나은 상태가 도래할 수 있도록’ 이성이 스스로에게 부

하고, 끊임 없이 성찰하는 자율적 주체로

서도록 돋는 윤리적 방파제가 되어준다”며 “칸트의 비판정신을 토대로 하는 교양 교육은 복잡하고 불확실한 현대사회 속에서 인간 존엄성을 보존하고 도덕적 책임을 완수하는 성숙한 인격형성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자유발표 순서도 진행됐다. 자유발표에는 ▲원신애 박사(서울신대)가 ‘레미제라블의 폴레랑스와 기독교교육의 시선’ ▲장유정 박사(한국침례신대)가 ‘대안학교 교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제안: 대안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김준근 박사(안양대 박사과정)가 ‘돕는 배필에 근거한 성경적 부부 파트너십의 현대적 함의: 가정과 교회 사역 사례 분석’ ▲전지현 박사(호서대)가 ‘인권의 재해석: 기독교 세계관이 넘지는 도전’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장지동 기자

태여연 등 “먹는 낙태약 수입 시도 중단해야”

현대약품 본사 앞서 2차 규탄 집회

태여연성보호국민연합(태여연)과 생명운동연합, 주사량공동체 등 생명윤리 단체 회원 및 시민들이 최근 서울 논현동 현대약품 본사 앞에서 ‘먹는 낙태약 수입 반대 2차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지난 10 월 30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집회

에서 참가자들은 현대약품의 임신중지약 도입 추진에 강한 우려를 제기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집회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이른바 ‘생명트랙’을 활용한 시각 자료 상영과 더불어 발언과 구호 제창이 이어졌다. 생명운동연합 김길수 대표는 “기업의 경제적 이익 추구가 태아 생명의 존엄 보다 앞설 수 없다”며 “가장 작은 존眚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톨릭대학 생명대학원 박은호 교수(신부)는 “먹는 낙태약은 여성의 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결국 인간 생명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수단”이라며 “생명 경시 문화가 일상화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참가자들은 ‘태아 발달 과정’ 영상 시청을 통해 생명의 단계를 공유하고, “낙태약 수입 반대”, “생명 존중”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집회에는 주사량공동체 관계자, 가톨릭 장애인 대학원생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현장의 모습은 유튜브 채널 ‘천리안TV’를 통해 생중계됐다.

현대약품은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임신중지약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



집회 현장 모습. ©태여연

소프로스톨’ 품목허가를 식약처에 네 차례 신청했으나, 식약처는 모두 허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낙태약 도입 시도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참가자들은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김길수 대표는 “현대약품이 수입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매주 목금요일 집회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형구 기자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전군 진중세례, 목표 4만 명 조기 돌파”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사장 김삼환 목사)는 최근 군종목사 파송 10개 교단 및 군선교 관계자들과 군선교 협조회 의를 열고, 2025년 전군 진중세례 실적이 연간 목표치를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올해 사역 보고와 함께 내년도 공동 전략을 논의하며, 군선교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11월 기준 전군 진중세례 인원은 연간 목표치인 4만 명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전국 56개 부대 군인교회에서 약 2만 5천여 명, 육군훈련소에서 2만 7,300여 명 세례를 받으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결실률을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회는 “코로나19 이후 종교활동 참여 저조, 신교대 해체와 임대 인원 감소, 병사 개인 스마트폰 사용 등 종교활동 위축 요인이 지속돼 왔다”며 “그럼에도 관문부대의 집중적 사역과 각 교회의 꾸준한 지원이 회복세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태를 넘어서는 MZ세대 중심의 새로운 군선교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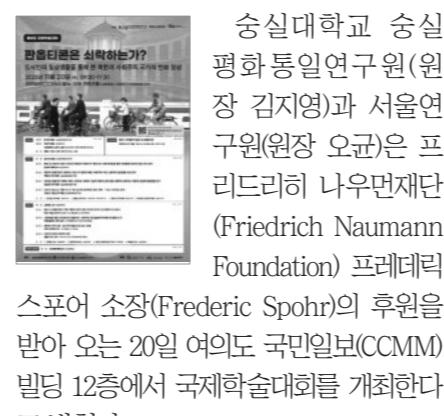
관계자는 “현재의 젊은 장병들은 종교활동 참여 경향, 정보 접근 방식, 관계 형성 방식이 과거 세대와 크게 다르다”며 “전문 사역자 지원 확대와 디지털 기반의 사역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장병 양육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왔니가칭’ 개발 현황도 공유했다. 이 플랫폼은 군인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장병을 체계적으로 돌보기 위한 ‘군인 신자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QR코드 출석 체크, 달란트 포인트 제공, 심방 기록, 기도 제목 관리, 결연교회 매칭, 일괄 문자 발송, 주보 작성, 현금 관리 기능 등이 탑재될 예정이다. 플랫폼은 내년 2월 열리는 군종목사단 수련회에서 공개된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이번 회복세는 군선교 현장이 다시 활력을 찾았다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전군 진중세례 결실을 양적 성과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장병 양육과 신앙 정착을 위한 구조적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노형구 기자

충실평화통일연구원, ‘판옵티콘은 쇠락하는가?’

주제 국제학술대회 연다



충실평화통일연구원(원장 김지영)과 서울연구원(원장 오균)은 프리드리히 나우먼재단(Friedrich Naumann Foundation) 프레데릭 스포어 소장(Frederic Spohr)의 후원을 받아 오는 20일 여의도 국민일보(CCM) 빌딩 12층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The Withering Panopticon? : Evidence from Everyday Life in North Korean Cities and Other Socialist Countries”(판옵티콘은 쇠락하는가? : 도시민의 일상생활을 통해 본 북한과 사회주의 국가의 변화 양

상)로, 북한과 사회주의 국가의 변화하는 일상적 양상에 대해 탐구한다.

개회식은 이운재 충실평화총장의 환영사로 시작되며,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무소 소장이 축사를 전한다. 이어 독일 SED 독재청산재단 과학부 프란시스카 쿠셀 부장이 기조연설을 맡는다.

세션 1에서는 충실평화통일연구원 김지영 원장이 좌장을 맡아 ‘북한 도시민의 일상 속 판옵티콘의 쇠락’을 주제로 논의한다.

발제는 충실평화 김성배 명예교수, 백명숙 연구위원, 정성준 연구위원, 프랑크 묘링 연구위원이 맡는다. 이후 서울연구원 문인철 연구위원, 서강대 정일영 교수, 통일연구원 정은이 연구위원과 한동호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한다.

세션 2에서는 충실평화 김태형 교수와 좌

장을 맡고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판옵티콘 쇠락’을 주제로 국제적 시각에서 논의가 이루어진다.

발제자는 라친 이탈 오즈티그 이스탄불 엘드즈공과대학 교수, 미로슬라브 바네 앤 애반젤리스타 푸르카네 대학 교수, 마리 한데릭 애기엘론스키대학 교수, 헬렌 티보 나자르바이젠대학 교수 등이 참여한다. 토론에는 김택빈 국방대 교수, 김지영 숭실대 HK교수, 표도르 테르치츠키 고려대 박사, 최슬아 숭실대 교수 등이 함께한다.

한편, 충실평화통일연구원은 학술대회를 통해 충실평화통일연구원은 북한과 사회주의 국가의 일상적 변화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장지동 기자

LX 하우시스

창호의 프레임을 새롭게

뷰:프레임



퍼펙트 슬림뷰 :

베젤리스 설계

클리어 엣지뷰 :

논실리콘 디자인

멀티플 화이트뷰 :

다양한 화이트 톤 소재

LX Z:IN



2024 한국산업 브랜드파워 창호 부문 최다 1위(18회)

LX Z:IN 창호

“AI시대 혼란 속도 하나님 주권 변함없어”

수영로교회, 15일 50주년 기념 제6회 전국청년사역 컨퍼런스 개최

부산 수영로교회(담임 이규현 목사)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최근 본관 2층 은혜홀에서 제6회 전국청년사역 컨퍼런스 'Walk With Worth'를 개최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초지능 AI의 부상으로 청년 세대가 겪는 신앙·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컨퍼런스에는 전국 각지의 청년 및 사역자들이 참석해 복음적 가치와 선교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을 모색했다.

먼저 아이자야 식스티원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집회는 첫째 메인강의로 미래학자인 아시아미래연구소 소장 최윤식 박사는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신학적 관점에서 조망했다.

최 박사는 최근 등장한 OI-딥시크(DeepSeek) 모델을 언급하며 “이미 박사 학위 수준의 전문 지식에 도달했고, 2~3년 안에는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 수준



아이자야 식스티원이 찬양을 인도하고 있다. ©수영로교회



참석자들이 찬양하는 모습. ©수영로교회

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창의력과 추론 능력도 인간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있다”며 “샘을 티면은 ‘수천일, 대략 10년 안에 초지능(Superintelligence)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노동 시장은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일자리 불안은 이미 현실적 문제로 등장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그러나 그는 “AI 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변함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연처럼 보이는 기술 발전조차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주권적으로 다스림 받고 있다.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 이어 성경적 인간론을 언급하며 “성경은 인간을 성선설·성악설·성무

선악설로 설명하지 않는다. 인간은 죄인

“칼빈 역시 모든 천부적 재능은 하나님의 ‘일반 은사’로서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에게도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은 가치중립적이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특별 은사를 주셨다.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난 ‘다스림의 책임’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박사는 “AI는 하나님과 일반 은사로 주신 영역이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를 선용하도록 다스릴 책임이 있다”며 “AI로 인해 세상이 좌약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컨퍼런스의 또 다른 메인강연자로

김명구 목사(홍대씨앗교회 FNC엔터테인먼트 사목)가 나섰다.

아울러 아이자야 식스티원, 김조룡 작가, 이진아 대표, 윤재덕 소장, 송준기 목사, 이종필 목사, 오기훈 목사, 남빈 목사 등 다양한 분야의 섹션 강사들이 참여해 청년 사역, 기독교 세계관, 콘텐츠·문화 영역, 리더십과 영성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루었다.

각 강의에서는 복음적 가치관에 근거한 청년 사역 전략, 선교적 삶의 회복, 디지털 시대의 신앙 훈련, 청년 문화의 이해와 사역의 현장 적용 등이 논의되었다.

컨퍼런스는 거센 시대적 변화 속에서 청년들이 믿음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돋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주최 측은

“문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답이 있으며, 그 답은 훈들리지 않는 복음적 가치”라며 “청년들이 시대의 혼란을뚫고 선교적 삶을 살아내기 위한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에게는 혼돈을 돌파하는 영성과 애성이 필요하다”며 “시대를 분별하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시키는 강력한 예배와 복음적 세계관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거센 시대적 도전 속에서 기독 청년들이 고립되지 않고 함께 연합해야 한다”며 “복음적 가치(Worth)를 블집고 세상 속으로 함께(With) 걸어갈(Walk)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청년 부흥을 열어주시실 것”이라고 말했다. 노형구 기자

한기총 임원회, 김정환 목사 제명 결의

질서위 보고 그대로 받아



한기총 제36~9차 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가 최근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36~9차 임원회(긴급)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의는 참석 27명, 위임 33명으로 성원됐으며, 개회선언, 전회 의록·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신규 회원 가입의 건으로 실사위원회(위원장 안이영 목사)가 이단사이비대책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과를 보고한 대 한예수교장로회 합동중앙총회(경기·총회장 김영희 목사), 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대표 박동찬 목사),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회장 송기섭 목사)에 대해 가입을 심의, 의결하고 실행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중앙총회(경기)는 회비 미납으로 회원권을 상실했다가 복귀하는 것으로 제36~1차 임원회 결의에 따라, 이번 임원회 결정으로 복귀된 것이며, 임원회 결의가 없이 복귀한 교단에 대해서는 정식 절차를 밟고 난 후 임원회 의결을 득할 것을 결의했다.

질서위원회 상정 안건으로 “정관과 운영세칙 등에 따라, 한기총의 질서와 도덕성,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신뢰성과 윤리성을 상실하고, 한기총의 질서와 공의를 심각하게 해손한 김정환 목사를 제명하고, 실제가 불분명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종회(반석) 한국교단체협의회를 제명”하기로 한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했다.

질서위원회는 정계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본회로 접수된 ‘조사 및 징계 요청서’에 대해 김정환 목사는 ‘사무총장’과 관련된 사안으로 “본인의 사무총장 지위가 박탈됐음을 주장한다면, 한기총은 어

떠한 조사 권한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무총장은 본래 한기총의 재정과 행정 전반을 관리·집행하는 책임 있는 직분으로, 김정환 목사는 재정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해손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사무총장직을 상실했고, 한기총의 공적 신뢰와 도덕성을 해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② 모 교회에서 유포 중인 문서와 영상에 대해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제경매에 대한 건을 자료로 제출했으나, 강제경매의 시기와 문제의 문서와 영상의 시기가 다르고, 실제 금품을 요청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다.

③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내부절차를 통한 이의제기 없이 사회 법정 혹은 경찰, 검찰에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행위에 대하여 기준 징계에 3배의 징계를 추가하는 것(현재 진행되는 소송 및 고발 건을 포함하여 소급해서 적용)을 임원회 결의(5월 2일 제35~2차 임원회, 6월 18일 제35~3차 임원회), 실행위원회 보고(6월 18일 제35~1차 실행위원회), 임시총회 보고(6월 27일 제35~1차 임시총회)로 통과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내부절차를

김진영 기자

이 통합 논의의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하성은 통합 논의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확대임원회를 개최하고, 정동균 총회장을 비롯해 업진용·양승호 부총회장, 강인선 총무를 공식 협상위원으로 선임했다. 백석총회 또한 통합을 위한 실무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계에서는 양 교단의 결합이 성사될 경우 외형 확대를 넘어, 한국교회가 여러 갈래로 분열된 구조를 재정비하고 대사회적 영향력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양 교단이 각기 다른 역사와 교회정치 체계를 갖고 있는 만큼, 실제 통합 과정에서 조직 구성, 제도 통합 방식, 사역 조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형구 기자

기하성·예장백석, 통합 논의… 거대 교단 탄생하나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기하성)가 최근 정기임원회 및 상임운영위원회를 열고 예장백석 총회(대표총회장 장종현 목사)와의 공식 통합을 추진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장 백석총회 역시 내년 통합총회 개최를 목표로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양 교단의 통합 논의는 초기 단계에서 본격 실행 국면으로 전환되는 모양새다.

두 교단이 실제로 통합에 이를 경우, 약 2만 교회 규모의 거대 교단이 탄생하게 돼 한국교회 전체의 교단 구도에 중대한 재편이 예상된다. 기하성과 백석 양측은 각각 오순절과 장로교를 대표하는 대형 교단으로, 이번 논의는 단순한 협력 수준을 넘어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선교·교육·사회참여 등 공동 사역에서 연합 구



과거 한교총 정기총회에서 직전 대표회장인 이영훈 목사(오른쪽)가 장종현 신임 대표회장에게 취임패를 전달하던 모습. ©기독일보DB

조를 구축하는 ‘선교적 연합체’ 구상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한국교회가 직면한 인구 감소, 세대 간 단절, 사회적 신뢰 약화 등의 현실에서 두 교단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양 교단 내부에 형성된 것

당신 주변에는 LS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뒤에는 LS가 있습니다

본 광고는 시가지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당신 주변에는 LS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뒤에는 LS가 있습니다

Everywhere you live and work

LS

<전력 공급 및 제어 시스템>

<해저 전력케이블>

2025년 정부세종청사 추수감사 연합예배 성료



추수감사예배 참석자 기념 사진. ©주최 측 제공

약 200여 명 기독공무원 참여, 감사의 삶과 은혜 나눠

정부세종청사 선교연합회(회장 최은희)와 농림축산식품부 기독선교회(부회장 김광희)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5년 정부세종청사 추수감사 연합예배'가 지난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예배에는 약 200여 명의 기독공무원들이 참석해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광희 농림축산식품부 선교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세종청사연합선교

회 경배와 찬양팀의 찬양을 시작으로, 최은희 선교연합회장의 대표기도, 흥지원 선교연합회 부회장의 성경봉독, 연합성가대의 특송, 한국농어촌선교단체협의회 회장 김기중 목사(사진)의 설교로 이어졌다.

이날 예배의 주제는 '우리는 감사의 주인공입니다'로, 김기중 목사는 누가복음

17장에서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님이 치유를 받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우리는 감사의 주인공이다.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더 큰 영적 은혜와 구속을 누리는 길"이라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전했다.

예배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기독선교회 회원들이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곡으로 봉헌 찬송을 드렸으며,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이 마음을 모아 예

물을 드렸다. 김미령 국토교통부 선교회장의 봉헌기도 후, 김기중 목사의 축도로 예배가 마무리됐다.

한편, 정부세종청사 선교연합회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25개 부처와 위원회에 소속된 선교회들이 모여 구성된 단체로, 매년 부활절, 매주 감사절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여 연합예배를 드린다. 또한, 매주 노방전도와 매월 구국기도회를 실천하며, 공직 내에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지동 기자

기쁨선교회, 북사목·북기총과 의료복지 MOU 체결

기쁨선교회(대표 주대일)는 최근 고양시 일산동구 메탈릭타워 내 사단법인 크로스로드(대표 정성진 목사) 세미나실에서 북한사역목회자협의회(북사목), 북한기독교총연합회(북기총)와 의료복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북한선교에 헌신하는 사역자들과 탈북민들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협력 의료기관 이용 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MOU에는 ▲무상 의료 상담 ▲진료 우선 예약 ▲치료 시 의료비 지원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항목들이 포함된다.

함께 겪는 귀한 동역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기쁨선교회 주대일 대표(우리가 꿈꾸는 교회 안수집사)는 "북한사역자들과 탈북민의 삶이 더욱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의료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쁨선교회는 이미 협력기관인 MS안과를 통해 안질환 관련 의료지원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치과·정형외과 등으로 협력 의료기관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MOU를 계기로 크로스로드가 돌

보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과 작은교회 목회자들에게까지 의료지원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쁨선교회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와 복지 지원을 통해 나눔과 돌봄의 문화를 확산해 온 단체로, 이번 협약을 통해 북한선교 및 탈북민 지원 영역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며 설립 취지를 본격적으로 실천하게 됐다.

기쁨선교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 의료 접근성을



MOU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 ©북사목

높이는 구조적 지원"이라며 "앞으로 더 있도록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형구 기자

한신대 박물관, '2025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성료

수원·화성·오산 지역 초등학생 대상,
전쟁과 평화의 의미 되새기며 역사 체험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 박물관(관장 정해득)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교육 프로그램인 '2025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을 성료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한신대 박물관은 13년 연속으로 이 사업에 선정되어 수원·화성·오산 지역 초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옛 수원 탐임슬립 : 역사를 만나다, 현재를 걷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오산 지역의 역사적 현장을 배경으로 하여, 임진왜란의 독산성 전투와 6·25전쟁의 죽미령 전투를 주요 주제로 다뤘다.

학생들은 전쟁을 단순한 역사적 사건

으로 배우는 것을 넘어서, 전쟁과 평화의 의미를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역사적 사건을 체험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정해득 박물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박물관은 지역사회에 인문학의 가치를 전달하고,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친근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쉽게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지희 교육사는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전쟁과 평화의 의미를 직접 생각하고 느



2025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진행 사진. ©한신대

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며 "2026년에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말했다.

한편, 한신대 박물관은 2013년부터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통해 매년 1,000명 이상의 수원·화성·오산 지역 초·중등생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체험과 현장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자긍심을 고취시켜왔다. 장지동 기자

사랑의교회, 수능 맞아 학부모 기도회 및 '더 라이트' 집회 개최

서울 서초구 소재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는 최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위해 학부모 기도회를 진행했다.

기도회는 고사장으로 자녀를 보낸 학부모들의 일정에 맞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이어졌으며, 약 5,000여 명의 학부모가 참여해 자녀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올해 수능에는 사랑의교회 소속 596명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렀다고 한다.

사랑의교회는 수능 당일 저녁, 본당에



집회 현장의 모습. ©사랑의교회

서 '더 라이트(THE LIGHT)' 집회도 개최했다. 네 번째로 마련된 이번 집회는 수험생과 청소년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

다. 올해 집회에는 CCM 그룹 제이어스(J-US)와 아이자야씨스티원(Isaiah67one)이 함께했다.

김진영 기자

경인 쥬빌리 제115차 통일구국기도회 열린다

11월 18일 부천 어명세계선교센터에서… 김호승 목사 강사

사단법인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가 오는 18일 오후 7시 30분, 부천 어명세계선교센터에서 "이루라, 복음통일을"(수 24:14)이라는 주제로 경인 제115차 통일구국기도회를 개최한다. 이번 기도회는 한국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반도의 복음적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리다.

강사로는 김호승 목사(갈릴리소명교회 담임, 민족복음화운동본부 흥보기획위원장, 어명세계선교회 사무총장)가 나서 말씀과 보보기도로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통일사명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 목사는 "복음적 통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며, "한국교회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회복할 때 민족의 소망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0년대 초반 민족중보기도운동으로 시작된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는 국내 30여 지역에서 정기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미국 워싱턴 D.C.와 사카고를 비롯해 호주 시드니, 프랑스 파리, 캐나다 토론토, 폴란드 바르샤바 등 25개 도시에서 기도운동을 벌이고 있다.

김진영 기자

동아보감 경옥고

소중한 당신께 귀한 마음을 담은
'프리미엄 한방 자양강장제'

다음 경우의 자양강장
병증병후 · 허약체질 · 육체피로 · 권태 · 생년기 장애

동아보감 경옥고는 동의보감 처방으로 엄선된 약재를 120시간 달여 소중한 분을 위해 완성한 한방 프리미엄 자양강장제입니다.

일반의약품 | 60포(23g x 10포 x 6)

경옥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알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일반의약품 광고심의필: 2023-1688-003600

“무고한 생명 희생 안 돼”… 탄자니아 선거 폭력에 교회들 일제히 규탄

최대 3천명 사망 추정 속 정부에 즉각적 폭력 중단·독립조사 요구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탄자니아에서 논란이 된 전국 선거 이후 폭력 사태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탄자니아 주요 교회 단체들이 강력한 우려와 비판을 표명했다고 14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세계교회협의회(WCC), 탄자니아 복음루터교회(ELCT), 로마가톨릭 주교단 등은 일제히 성명을 발표해 수천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사태를 “국가적도덕적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현지 인권 단체들은 지난 10월 29일

치러진 선거와 그 후 이어진 시위 과정에서 최대 3,000명이 경찰의 무력 진압으로 사망했으며 300명 이상이 구금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즉각적인 실탄 사용 중단, 기본권 회복, 독립적 조사 기구 설치를 요구하며 탄자니아 정부의 강경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6백만 명 이상의 교인을 가진 ELCT의 총회장 알레스 게하즈 말라수사 감독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우리의 존엄과 가치, 인류애를 깊이 훼손한 비극”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위로 인한 사망과 실종, 광범위한 재산 손실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어떠한 정치적 과정도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WCC 제리 필레이 총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다”며, 탄자니

아 정부에 즉각적인 폭력 중단과 실탄 사용 금지를 요구했다. 그는 “시민들이 인터넷 차단 속에 억압당하고, 대규모 체포와 위협이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는 깊은 충격”이라며, 기본적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CDI는 탄자니아 정부가 아직 정확한 사망자나 체포자 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선거 후 인터넷을 전면 차단해 정보 검증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논란 속에서 사미아 술루후 대통령은 98%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된 것으로 발표됐으며, 야권과 시민사회는 이를 강하게 문제 삼고 있다.

선거를 관찰한 아프리카연합(AU)은

선거 전후의 ‘광범위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AU는 선거 전 앙디자자 체포, 일부 지역에서의 투표 방해, 선거 당일 인터넷 차단 등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우려를 표했다.

WCC는 지역 국가들이 탄자니아가 진실·책임·화해의 과정을 평화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탄자니아기독교협의회(CCT)와 각 신앙 단체들이 긴장 고조 상황 속에서 대화와 화해를 촉구하는 역할을 계속할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CDI는 케냐 오순절 연합체인 ‘펜테코스털 보이스 오브 케냐(PVK)’는 탄자니아 케냐 국적자에 대한 체포·폭력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즉각적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빌 올렌보 PVK 총무는 “동아프리카 이웃 국가들이 유엔과 지역 인권 규범에 따라 케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탄자니아 안팎의 교회 지도자들은 이번 사태가 더 큰 폭으로 번지지 않도록 정부와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투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들은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은 억압받는 자들과 함께 서서 진실을 말하고, 치유와 회복을 향해 국민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연 기자

나이지리아 목회자, ‘집단학살’ 경고 후 살해 위협 직면

극단주의 공격 영상 공개 후 협박 급증…

교계 지도자들 “조직적 박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 학살 실태를 공개적으로 알린 한 목회자가 극단주의 세력으로부터 지속적인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플랫로(Plateau)주 바르킨 라디(Barkin Ladi) 지역에서 교단 COCIN(Church of Christ in Nations) 지역 의장을 맡고 있는 에제키엘 다초모(Ezekiel Dachomo) 목사는 최근 자신이 암살 표적이 됐다고 밝히며 공포 속에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다초모 목사는 10월 24일(이하 현지시각) 조스(Jos)에서 현지 기자들과 만나 “내 생명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계속 공격을 경계하고 있다. 이전에도 공격을 당했지만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으로 숨진 교회 성도들의 시신이 매장된 집단 매장지에서 서서 활동한 영상을 공개하며 정부의 학살 부인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 영상에서 다초모 목사는 최소 12명 이상의 희생자 시신을 거리며 “정부는 기독교인 학살이 없다고 말하지만, 오늘만 해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정부와 유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도움을 호소하며 “イスラ엘과 하마스 분쟁에 개입했듯이 나이지리아에도 관심을

민 캠프를 떠돌고 있다.

구오자 기독교 공동체협회(GCCA)는 최근 발표한 ‘숨겨진 집단학살(Unspoken Genocide)’ 보고서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예배당 건축 허가를 일절 받지 못했지만, 이슬람 사원은 자유롭게 건립되고 있다”며 구조적 차별을 고발했다. 또한 공공기관 채용에서도 기독교인은 사실상 배제됐으며, 정부 학교에서는 기독교 종교교육과목 자체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수천 채의 무슬림 거주는 정부 지원으로 재건되었지만, 기독교인 주택은 거의 복구되지 않았다. 수천 채 중 기독교인에게 돌아간 집은 단 3곳뿐”이라며 심각한 불평등을 지적했다.

◆“폭력, 이미 최악 수준… 나이지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스(Open Doors)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2025년 월드워치리스트(WWL)에서도 ‘기독교인으로 살기 가장 위험한 국가’ 7위에 올랐다.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신앙으로 살해된 기독교인 4,476명 중 3,100명이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했다고 기록했다.

또한 중부 벨트 지역에서는 극단주의 풀라니(Fulani) 무장세력의 기독교 농촌 공격이 계속되고 있으며, 북부 각지에서도 보코하람·ISWAP 등 지하디스트 조직의 공격, 납치, 성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알카에다 연계 조직 ‘라쿠라와(Lakurawa)’까지 등장해 서북부 지역 불안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영국 의회 산하 ‘국제 종교자유 APPG’

도 이미 2020년 보고서에서 일부 풀라니 무장세력이 지하디스트 조직과 동일한 전략과 이념을 공유하며 기독교 상징물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학살… 국제사회 개입 필요”

나이지리아 교계 지도자들은 반복되는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사회를 향한 폭력과 차별이 구조적으로 이어

지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주목과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보르노 지역 교계는 “교회는 전혀 공격을 가한 적이 없으며, 공격하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살해한 적도 없다”며 “이는 명백히 일방적이고 조직적인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다초모 목사는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도 “기독교인 보호와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독교인 학살 현장과 위기 상황을 기록하려는 그의 움직임은 오히려 극단주의 세력의 표적을 키우고 있지만, 그는 “미래 세대가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증언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연 기자



나이지리아 군 대표가 에제키엘 다초모 목사의 교회를 찾아 보호를 약속했다.
©Screenshot from YouTube

美신시내티 ‘유나이트어스’ 집회, 수천 명 대학생 결신

3개 대학 학생 5,500명 모인 복음집회… 현장 세례 이어지며 지역 교회 연결도 활발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신시내티의 주요 대학 인근에서 열린 대규모 복음집회에서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거나 신앙을 다시 고백하는 결신을 했다고 12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레즈 경기장 옆 해리티지 뱅크 센터에서 지난 5일 개최된 ‘유나이트어스(UniteUs)’ 전도 집회에는 신시내티대학교(University of Cincinnati), 제이비어대학교(Xavier University), 신시내티 스테이트 칼리지(Cincinnati State College) 등 3개 대학에서 약 5,500명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최한 유나이트어스 측은 예배와 메시지가 진행되는 동안 수많은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신앙을 고백했으며, 집회가 끝난 뒤에는 경기장 밖에서 즉흥적으로 세례식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일부 학생들은 피업트럭 뒤편에 설치된 이동식 세례풀에서 서로를 세례 주며 기쁨을 나눴다.

유나이트어스 창립자 토니 프루엣



지난 10월 21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그랜드캐니언대학교에서 열린 대규모 유나이트어스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모습. ©GCU

(Tonya Prewett)은 SNS를 통해 이번 집회를 “하나님이 젊은 세대 안에서 움직이시는 강력한 증거”라고 표현했다.

유나이트어스는 2023년 9월 오번대학 교 네빌 아레나(Neville Arena)에서 학생 주도로 시작된 복음 운동으로, 이후 미국 여러 대학 캠퍼스로 확산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인다는 목표 아래 계속 성장하고 있다.

기독교방송 CBN에 따르면 이번 신시내티 집회에서는 2,000명 이상이 지역 교회 및 캠퍼스 사역팀과 연결됐으며, 그중 많은 학생들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세례에 참여했다. 신시내티대학교 학생인 안나 브라운(Anna Brown)은 “하나님이 이 세대 안에 역사하고 계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B E Y O N D
E N T E R T A I N M E N T
E L E V A T I N G
E X C I T E M E N T**

일상 속 색다른 즐거움이 있는 곳,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WALKERHILL
HOTELS & RESORTS

워커힐의 다채로운 콘텐츠와 함께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 보세요.

MEET NEW ART @ VISTA
비스타 워커힐의 야외 가든, SKYARD에서
최고의 뷰와 함께 세계적인 아티스트
JAYSON ATIENZA의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ART PICNIC
워커힐의 아트 프로젝트 1단, 아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예술과 함께하는 아트 피크닉
즐겨 보세요.

KakaoTalk 풀러스친구

카카오톡 풀러스 친구 WALKERHILL

워커힐의 카카오톡 친구가 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이벤트 소식을 제일 먼저 받아 보세요.

www.walkerhill.com 문의 1670-0005

위 브릿지 1기 감사예배, 외로운 개척교회들 사이에 다리를 놓다

남가주 넘어 타주로 사역 확장 비전 나눠

기독일보가 지난 11월 11일 제1기 위 브릿지 감사예배를 드리며 지난 3년의 사역을 마무리했다.

또한 남가주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위 브릿지 사역이 새로운 2기 사역을 시작하며, 남가주를 넘어 텍사스 및 타주로 사역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제 1기 위 브릿지를 통해, 총 50개 남가주 교회가 3년간 후원을 받았다. 또, BTS Solar Design, Crober INC., EHP Solutions, LA 사랑의 교회, LA씨티교회를 비롯해 총 50개의 단체와 교회가 위 브릿지로 선정된 교회들을 도왔다.

참여 교회들은 “물질보다 더 큰 선물은 ‘너희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작은 개척교회였지만, 이 교회를 기억하고 계심을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팬데믹이 종식 단계로 접어들던 2022년 9월, 팬데믹으로 인한 여파는, 재정적 기반이 자리잡혀 있던 대형교회들보다, 재정적 기반이 약한 소형교회들에 더 깊은 타격을 줬다. 지난 3년의 기간,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손을 내밀었던 위 브릿지의 손길은, 남가주 여러 개척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순종하기 위해 묵묵히 개척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같은 처지의 동역자들과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했던 그 따뜻했던 날들의 기억을 남기며 마무리 될 시점이 다가왔다.

제1기 위 브릿지 감사예배는 11일 오전 10시 충현선교교회(국윤권 목사) EM 예배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기독일보가 주최하고 크리스천 다음세대 연구소(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가 주관했다.

예배는 강태광 목사(WorldShare USA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원하트미니스트리의 개회찬양과 김용근 목사(크레센타밸리교회)의 대표기도로 시작되었다. 위 브릿지 교회 연합 찬양에 이어,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원로)는 ‘동역’(시편 133:1-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시편 133편을 중심으로, 이 사역을 통해 회복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배’라고 말했다.

“시편 133편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범례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 불려진 찬양이다. 범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곧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을 모시고 온 백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기쁨이었다.”

그는 “우리는 종종 ‘주님을 위해’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를 물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는 것 같다. 주님께 나를 드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 그런데 다윗은 범례를 옮기게 되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기뻐한다. 이 말씀을 통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 회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저는 원래 음악을 했다.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설교 후 집에 오면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아직 가수야. 박수 받는 비결을 알잖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사람의 주목을 받으려는 거야.’ 그 말이 제 마음을 깊이 찔렀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연예인적 습관이 제 안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한동안 그 부분을 두고 많이 씨름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쇼’를 하는지 물었다.

“내가 지금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가 정말 순수하게 100%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인가? 설교를 할 때도 나도 모르게 인기를 얻으려 하는 나 자신을 본다. 한 시간 예배도 필요하다. 25분 설교도 필요하다. 그런데 어떤 때는 1시간도 설교하고, 2시간 예배도 있어야 한다. 왜 예배가 인스턴스화 되었나? 왜 하나님을 가둬놓는가? 내가 다 계획하고 예수님이 거기에 가둬놓고, 말씀을 가둬놓고, 기도를 가둬놓고, 찬양을 가둬놓고, 어떻게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그러면서, 위 브릿지의 사역 또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함을 강조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 된 공동체임을 상기시켰다.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보배로운 기름처럼,

연합 속에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흘러가며, 그 향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의 증거가 된다고 했다.

또한 혈문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독일보가 지난 11월 11일(화) 제1기 위 브릿지 감사예배를 드리며 지난 3년의 사역을 마무리했다. ©기독일보

은혜가 공동체를 적시고 새롭게 하신다 고 전했다. “형제가 동거하며 서로 불잡아주는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교회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잠언 4장 9-12절을 인용하며, “함께할 때 훈들리지 않는다”며, 위 브릿지의 동역자들이 이 말씀처럼 연합의 줄로 하나 되어야 한다고 권면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훈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이니라”(고전 15:58)를 위 브릿지 교회 목회자들에게 권면의 메시지로 전하며, 9년 전 암투병을 겪으며 자신의 목회의 자세가 달라졌던 사건을 나누었다.

“9년 전, 암에 걸려 사형선고를 받았다. 1년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 그때 나는 살려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1년 반을 백 년처럼 살 거야.’ 그렇게 다짐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내가했던 목회는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일들이 너무 많았다. 비열했고, 교만했고, 게을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려 했던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떠올랐다. 그래서 다짐했다. ‘나는 1년 반을 백 년처럼 살 거야. 오늘이 마지막이란 마음으로 살 거야.’

그는 “오늘이 마지막이자 처음이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고 말했다. 1부 예배는 최학량 목사(미주한인군목회장)의 축도로 마무리되었다.

◆2부 위 브릿지 은혜 나눔

2부 순서로 위 브릿지 사역 은혜 나눔

이 진행됐다.

강태광 목사와 김금자 전도사(기독일보)의 사회로, 김영일 목사(더 섬기는 교회), 정용암 목사(랜조한인교회), 곽수정 사모(LA ONE CHURCH), 김수정 사모(LA 성암교회)가 은혜를 나누었고,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 폴 킴 목사(BTS SOLAR 대표), 박은성 목사(나성영락교회), 국윤권 목사(충현선교교회)

가 격려사를, 이인규 목사(기독일보 대표)가 감사인사를 나누었다.

김영일 목사(더 섬기는 교회)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다’며, 후원 교회의 섬김과 도움을 통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멕시코 선교를 다녀올 수 있었다고 간증했다.

정용암 목사(데메콜라 랜조한인교회)는 “개교회 중심적 배타주의를 넘어, 하나님 됨을 실천하는 사역이었다”며 “이 사역이 한국과 세계로 확장되어 작은 교회들을 세우는 운동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LA에서 우범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컴튼에서 그곳 가정들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LA ONE CHURCH 곽수정 사모는 “2022년 초, 바닷가에서 기도 하던 중 ‘미주 기독일보를 검색하라’는 감동이 있었다. 그렇게 위 브릿지 사역을 알게 되었고, 마감된 컨퍼런스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신청했는데 받아주셨다”고 말했다.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제 이름이 적힌 테이블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구나’라는 마음에 눈물이 났다. 이제는

12인승 버스를 선물받아 아이들을 가득 태우고 교회로 향한다. 위탁아동 두 명이

함께하게 되었고, 술병을 치우지 않아도 되는 새 예배처도 주셨다. 위 브릿지는 하나님께서 외로운 개척교회들 사이에 놓으신 다리이다. 그 다리 위로 기도와 사랑, 희망이 오간다. 키클한 밤 망망대해에 조명탄 하나를 쏘아 올렸던 그 자리에서, 그 빛을 보고 달려와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간증했다.

LA 한인타운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수정 사모(LA 성암교회, Holy Rock Church)는 2020년 11월 팬데믹으로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을 때, 교회를 개척했다고 나눴다.

그는 비비람이 부는 가운데, 집 앞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집 주인에 의해 천막 철거 명령을 받고 예배 처소를 찾아 헤맨 사건 등, 팬데믹 기간 중 교회를 개척하며 겪은 어려움들을 간증해, 위 브릿지 사역의 의미를 돌아보게 했다. “교회를 개척하며 감당해야 될 무게도 너무 커지만, 주님의 그 작은 위로가 큰 힘이 되었다.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 3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위 브릿지를 통한 그런 위로의 시간들이었다”

송정명 목사는 팬데믹으로 수백 개의 교회가 문을 닫혔을 때, 위 브릿지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폴 킴 목사는 ‘교회를 도우라’는 음성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정확하게 채워주셨는지 간증했다.

“하루 3천 명씩 죽어 나갈 때 저도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살아 남고 나서도

걸을 수 있게 되기까지 4, 5개월이 걸렸다. 걸어서 L.A에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 인구 목사님이 저에게 위 브릿지를 설명셨다. 나 혼자 설 힘도 없는데.. 백만 불이 넘는 병원비로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재정이 다 사라졌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했다. 하나님께, 저보고 오히려 도우라고 하셨다. 그래서 시작했다.”

“시작할 때는 제가 한 교회를 섭기기로 했다. 그런데 두 교회로 늘어났고, 또 2년이 지나서 세 교회가 됐다. 또 한 교회가 반밖에 후원하지 못한다고 해서 제가 또 반을 부담했다. 그래서 교회 3개 반을 섰겠다. 이제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제가 시작할 때의 매출액의 3.4배로 늘려 주셨다. 이 불경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다 채워주셨다.”

박은성 목사(나성영락교회)는 코비드 당시, 한국 교회의 교회들이 미주 이민 교회를 돋기 위해 수천만 불의 현금을 보내주셨던 사실을 전하며, “이민 교회가 어떻게 섬김의 방향을 회복할지 고민하던 중, 기독일보를 통해 동행의 길을 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국윤권 목사는, 장애인 사역을 하신 아버지를 늘 자신의 목회의 자리에서 떠올린다며 “규모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가장 좋은 목회자의 자세”라며, 이 사역을 통해 남가주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인규 목사는, 눈길에 쓰러진 순례자를 등에 엎고 걸어감으로써 자신도 동사하지 않고 그 순례자도 살릴 수 있었던 사우 씬다 싱(Sadhu Sundar Singh)의 일화를 언급하며, “나조차 살기 어려운 때이지만, 남을 살리려는 사랑이 결국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이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이며, We Bridge 사역의 정신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역을 남가주를 넘어 미주로,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향한 연합의 다리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는 단체 사진 촬영과 강문수 목사(KOC 목사회 회장)의식사기도 후 점심식사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번 행사는 위 브릿지 교회들과, 후원 교회들을 비롯해 충현선교교회, 귀성당, 서울 메디컬 그룹, BTS 솔라, 채안주지사 후보 후원회, 월드쉐어 USA, 한국혜민병원, VITAPIA,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센터 메디컬 그룹 등이 후원했다. 위 브릿지 사역에 보다 많은 관심과 후원을 원하는 분들은 213-434-1170이나 chdailyla@gmail.com 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디 한 기자

국내 유일의 공적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 수수료는 3년간 0원 ('25년 한시)

▣ 국가지원금은 3년간 20%

최저임금의 130%('24년 월평균 273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근로자, 사업주에게 각각 10%씩 지원

▣ 안정적 수익률 14.67 % 달성

2024년 12월 기준 누적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홍보모델 김성주

▣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고객센터 1661-0075

종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검색하세요!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下)

선교사를 위한 책 한 권

배안호 선교사의 책 사다리(5)

방동섭,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No Church without Mission)〉
(생명의말씀사, 2010)

3. 선교와 교회: 사
도행전과 선교적 교회
(missional church) “신
약성경은 선교문서”



배안호 선교사

21세기 현대 교회는 계속 질문해야 한다.“선교가 무엇인가?”“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약성경의 모든 기록은 예수님과 교회의 선교적인 움직임에 관한 ‘선교문서’(missionary document)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미지의 세계를 향해 출발하는 현대교회는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하여 신약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 느낀다.

구약의 역사가 끝나고 신약시대가 시작되기 전 ‘중간 시기’(intertestamental period, BC 586~AD 70) 약 400년간의 선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BC 1세기경 지금의 이스라엘에 약 200만 명 유대인이 살고 있었지만 더 많은 유대인은 중동 지역을 비롯해 전 세계 넓은 지역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고 있었다. 이들은 이미 선교적인 특징을 강하게 보여주었다. 유대인 공동체마다 수많은 회당이 존재하였다. 이 시기에 구약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은 신약시대 하나님 나라를 여는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들이

였다.

신약시대를 개막하기 전, 선교의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회당은 선교를 위한 중요한 공간으로 준비시키셨다. 예수님의 선교(복음) 사역의 거점 확보였다. “70인 역(LXX)’ 구약성경은 초대교회의 선교적 성경(the missionary Bible)이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장이 확보되게 하였다. 마침내, “때가 차매”(갈4:4) 예수님이 오셨고 신약시대가 시작되었다.

3.1.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공동체/선교 공동체

사도행전의 교회는 한 마디로 펼칠 살아 있는 교회였다. 오늘날 전 세계교회는 한 마디로 ‘하향 평준화(下向平準化)’되어 있다. 오늘날 우리가 잊어버린 본래의 교회 모습을 사도행전 교회는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사도행전은 ‘교회다운 교회’의 전형(典型)을 보여준다.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였다. 제1장부터 주님은 “기다리라”(1:4)고 먼저 명하셨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다. 우리는 선교, 선교하면서 무너지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열심히 교회당 건물 짓는 것만이 선교의 전부인 줄 알고 있지는 않은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1:8)는 선교 명령은 두 번째 명령이다. “기다리라”는 명령이 먼저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1:4)

사도행전의 첫 번째 명령은 “내 증인이 되리라”가 절대로 아니다. 이것은 두 번째 명령이다. 성령 부어 주심을 위해 예수님 이 친히 5번이나 ‘기다리라’고 직접 언급 하셨다(요14:16, 26, 15:26, 16:7, 13). “사도 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가 성령의 자비를 받고 영향을 받으며 전진해 나간

것을 보여 준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성령의 활동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복음”, 혹은 “성령행전”이라고 불린다.” (p. 291, 천 번, 만 번 지당한 말씀이 아닌가?)

3.2. 선교적 공동체(church as mission) =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

이런 선언은 이미, 72년 전 1952년 훌링겐 세계선교대회(Willingen IMC)에서 공식적으로 천명되었다. 곧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20:21)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0년간 한국 교회와 세계교회는 ‘대표선수’ 몇 명을 선발하여 선교지에 파송하는 방식의 선교를 감당하였다.

“이제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는 기관(a sending agency)’의 개념으로부터 교회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being sent)’라는 개념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즉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 그 자체가 선교사라는 것이다.” (p. 294, 교회 자체가 선교사기관이다)

한동안 한국교회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크리스천 슈바르츠(Christian A. Schwarz)의 NCD (Natural Church Development) 교회상장 이론은 많은 문제를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회 안에 10%의 전도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전도를 맡겨야 한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교회 안에 10%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된다. 난센스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하신이 무엇인지 모르는 공동체는 자선이나 사회사업은 할 수 있어도 선교는 불가능하다. 선교는 언제나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격적으로 지배하신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공간에는 선교가 진행된다. 선교는 교회가 성령의 포로가 되어 온전히 순종할 때 가능하다.” (p. 297, 아멘, 아멘.)

교회가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육신 공동체, 캐리그마적 공동체, 디아코니아적 공동체, 나아가서 디다케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은 모두가 선교적 제자’(a missional discipleship)로서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교회 선교는 교회 성장의 마지막 단계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출발부터 실천해야 하는 사역이다. 선교적 몸짓을 잊어버린 교회는 제도화된 화석으로 변할 수 밖에 없다. 선교적인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한다. ‘십투암의 원리’에서 보듯, 농도가 높은 액체(교회)는 농도가 낮은 곳(사회)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다.

나가는 말(결론): “Ad Fontes(원천, 말씀)로 돌아가자!”

선교본적 교회론(missional church)이 회복되어야 한다. “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야 한다” 21세기 현대교회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위기적 상황을 직면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아직도 상당수의 신자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

주일학교와 청년대학부가 없는 교회가 이미 태반이나 되었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이 급격히 상실되었다. 한국교회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 인터넷, SNS, 유튜브 시대, “거대한 지적인 혁명”(a massive intellectual revolution)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

2025년 10월 26일은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이었다. “한번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제나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는 솔직히 자기 개혁에 충실히 못했다.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을 맑아

가는 모습이었다. 한국교회는 그간 제자훈련을 열심히 해 왔지만, 교회라는 제도를 넘어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제자. 곧 ‘선교적인 제자’(missionary disciple)를 세우는 일에 실패하였다. 제자훈련은 예수님의 종체적인 삶을 닮은 제자 세우기다.

1. 말씀을 따라 개혁되는 교회: 교회는 말씀 공동체이며, 교회의 위기는 곧 정체성의 위기이다. 교회 정체성은 성경적 교회론에서 비롯된다. 오랜 세월을 복음주의자들은 교회를 ‘정적인 교회’(static church), 또는 ‘제도적인 교회’(church as institution)로 이해하였다. 교회의 역동적 특성을 간과하였다. 이런 ‘축소주의의 교관’을 사도행전의 교회 모습에서 상상할 수 있을까?

2. 사도적인 교회는 곧 ‘사도적인 공동체’: ‘사도’라는 직분은 이미 끝났지만, 사

도적인 선교가 끝난 것은 아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동일한 신앙과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사도적 공동체’다. 현대교회는 더 이상 일시적 쟁쟁의 프로그램 중심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선교는 하나의 과업(a task)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the essential nature)이다. “다시 말하면 선교 없이는 교회일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전혀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p. 336, 모든 교회는 당연히 선교적 교회여야 한다.)

3. 세상으로 들어가는 교회: “교회 자체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요 20:21) 교회론의 위기는 선교적 특성을 잊어버린 교회론을 강조해 온 데 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고,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교회는 세상에 참여하는 공동체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참여하는 거룩한 움직임을 우리는 선교라고 할 수 있다.” (p. 338)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노예로 끌려가면서도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파송된 대사임을 잊지 않았다.

4. 보내는 선교사는 없다: “교회 구성원 모두가 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사용해 온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의 이분법적 선교 개념은 옳지 않다.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 구성원은 모두가 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평소의 서평자가 주장하던 사실이라 참으로 반갑다. 한 마디로 놀라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 한국교회가 즐겨 사용하는 선교한국은 한국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으로 완성될 수 없다. 한국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머물든지 선교사가 되어 세상의 각 분야에서 빛과 소금으로 빛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선교한국은 말 그대로 실현될 것이다. 서평자는 15년 직장 생활부터 이미 선교적인 삶을 살아왔다.

5. 한국교회 선교학의 사명: “한국교회의 신학계를 향해 도전해야”

방동섭 교수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 교회의 선교학이 사명이 있음을 일깨운다. “한국교회의 선교학의 사명은 무엇보다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한국교회의 신학을 향해 도전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선교학이 이 분야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혼신한다면 한국교회의 선교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p. 340) 예수님의 성육신은 선교적인 면에서 본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천상의 문화에서 인간의 문화로 이동하신 교차문화적 사건(cross-cultural event)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상으로 내려가는 성육신적 선교사이며 동시에 이웃을 향한 섬김과 긍휼의 거룩한 공동체다.

“선교본적 교회론을 정립하는 것은 교회를 교회로 하는 21세기의 매우 중요한 신학이다. 현대교회 지도자들이 이 분야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계획하고 교회론을 재정립하는 작업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21세기 교회의 위기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p. 342) (끝)

배안호 영국 선교사(Peterahbae@gmail.com)

2025 한국해외선교회(GMF) 포럼 개최



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의 장으로 마련됐다.

주최 측은 “과거 사역 방식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현지인 중심 사역 시대에 사역자와 해외 파송 단체, 그리고 지역교회가 가져야 할 역할과 책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지인의 역량 강화가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사역적 삶의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누구의 비전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중심 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으로 한 사역 방향성을 모색할 것”이라며 “과거 사역 방식에 대한 솔직한 성찰과 새로운 제안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강사로는 WGA 전 대표 커크 프랭클린 박사(OCMS, MST 교수), 권성찬 GMF 대표, 김철수 박사(아프리카 국제대학 은퇴교수), 전승만 대연교회 담임목사 등 국내외 현장에서 사역 중인 리더들이 참여해 의미 있는 사례와 통찰을 공유할 예정이다. 선교에 관심 있는 누군가 참여할 수 있다.”

KWMA·KIMA, 26-1차 이주민 선교사 훈련학교 진행

내년 1월 19일~22일 소망수양관에서 합숙 훈련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산하 3개 실행위원회와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KIMA, 상임대표 정노화 선교사)가 진행하는 26-1차 이주민 선교사 훈련학교가 1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간 경기도 광주 소망수양관에서 진행된다.

KWMA 내 연합선교훈련위원회 임경철 목사), 디아스포라(위원장 황덕영 목사)를 중심으로 사례 발표와 사법, 실습

사), 난민(위원장 고성준 목사) 실행위원회 KIMA는 비자발적 철수 후 국내에서 이주민 사역을 하는 귀국 선교사들과 현재 이주민 사역을 하는 사역자, 이주민 사역 준비자 및 관심자를 대상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한다.

주최 측은 “특히 이번에는 이주민 전도, 이주민 제자훈련, 이주민 교회개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하여 실제 전도와 제자훈련, 교회개척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사례 발표와 사법, 실습을 통해 확실한 이주민 선교사로 양성하



과거 이주민 선교사 훈련학교 참석자 단체 사진 ©KWMA

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비는 1인 20만 원(청년 대학생 5만 원)이다.

이지희 기자

21번째의 도전

바다의 가능성을 우리 모두의 가치로 만들어온 부산항만공사 21년,
새로이 도약할 100년을 위해 부산항만공사는 세계로 힘차게 뻗어갑니다.

BPA | 부산항만공사
BUSAN PORT AUTHORITY

20+1 BPA
부산항만공사 창립 21주년

초연결시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종합 항만서비스 키워드
21번째의 도전

친환경 디지털 항만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북한 재개발과 함께 발전하는
시민들의 항만공간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로
부산항의 국제적 위상 확장

최첨단 스마트 항만 구축으로
원활·자동화 항만 실현

로잔 “AI 시대 선교” 논의… “기술, 도구일 뿐 복음 주체는 인간”

로잔운동(Lausanne Movement)이 인공지능(AI)이 기독교 선교의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로잔운동은 새로 출범한 연구 부서 ‘라이트(LIGHT)’를 통해 교회와 일상 속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AI 기술의 기회와 도전, 그리고 그에 따른 신학적·윤리적 책임을 탐구하고 있다.

연구 주제는 커뮤니케이션과 학습, 목회, 신학, 돌봄 사역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다.

라이트의 최근 보고서는 “AI 자체는 구원자도 위험도 아니다. 그것의 가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분별하고, 관리하며, 사용하는 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로잔운동은 AI가 세계 사회 전반에 깊이 스며드는 현 시점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복음 선교의 사명을 왜곡하지 않도록 한다.

으면서 오히려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고서는 AI에 대한 논의가 단순히 윤리의 문제를 넘어, 목회자·선교사·신학자들에게는 “복음 사역의 본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진다고 지적된다.

현재 AI는 성경 번역, 커뮤니케이션 자동화, 복음 전파와 선교 전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남용될 경우 인간적 관계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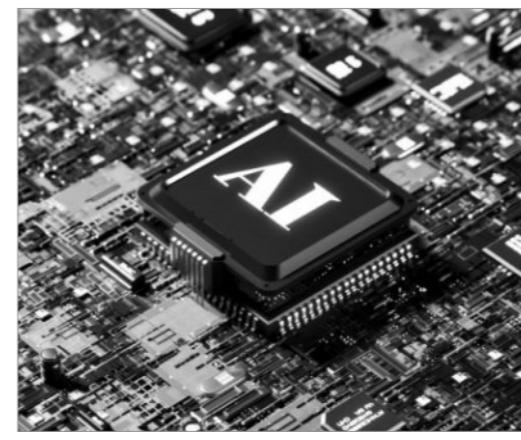
라이트 보고서는 “순진한 낙관주의도, 마비된 두려움도 경계해야 한다”며 “신학적 통찰과 윤리적 인식으로 AI를 다뤄야 한다”고 권장했다. 또한 “AI가 인간 관계를 대체하지 않고 강화하도록, 교회가 디지털 시대에 투명성과 공정성 정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을 던질 것을 제안했다.

로잔운동은 AI가 세계 사회 전반에 깊이 스며드는 현 시점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복음 선교의 사명을 왜곡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로잔 연구진은 △대위명령(Commission Alignment)과의 일치, △인간적 영적 관계의 강화(Relational Alignment),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 약자 보호(Utility and Equity Alignment), △투명성과 도덕적 책임(Moral Alignment) 등 네 가지 윤리적 기준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AI는 하나님의 교제나 사람 간의 관계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진정한 인간적 연결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도덕적 책임을 가진 존재로서, 결코 기계에 도덕적 주체성을 부여할 수 없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에 대한 책임은 결국 인간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선포적 복음 전도’ 영역에서 AI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AI는 새로운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거나, 문학적으로 적합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지만, 로잔운동은 “디지털 도구가 성육신적 복음 증언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Igor Omilaev/Unsplash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인간의 육성은 결코 대체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보고서는 “예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며 “AI 시대에도 성육신적 인간 증언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은 자와 외로운 자에게 실제적으로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라고 강조했다.

라이트 보고서는 “교회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기술 혁명을 맞이해 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분별과 용기, 기도로 대응해야 한다”며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AI는 하나님의 설계의 효율성과, 하나님의 방법의 충분성을 동시에 도전한다”며 “AI가 보조할 수는 있지만, 복음을 선포하고 대위명령을 완수하는 영으로 충만한 인간 증언자를 결코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지었다.

이미경 기자

美 자선지수… 와이오밍 ‘가장 나누는 주’, 가장 인색한 주는?



©pixabay

미국의 각 주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얼마나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금융 정보 플랫폼 월렛허브(WalletHub)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50개 주를 ‘가장 자선적인 주’부터 ‘가장 덜 자선적인 주’까지 순위를 매겼다. 이번 조사는 ▲자원봉사 및 서비스 참여도 ▲자선 기부 규모 등 두 가지 핵심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됐다.

자원봉사 및 서비스 부문에서는 자원봉사 참여율, 1인당 봉사시간, 이웃을 돋는 비율, 어려운 이웃에게 돈을 빌려줄 의향, 음식 및 의류 모금 활동 참여율, 모금 행사 참여율, 일반적 노동 봉사 참여율 등을 반영됐다.

자선 기부 부문에서는 소득 대비 기부 비율, 시간·금전 기부율, 인구 대비 공공 자선단체 수, 상위 평가 자선단체 비율, 자선 관련 검색량, ‘피딩 아메리카(Feeding America) 푸드뱅크 수, 노숙인 보호 비율 등이 평가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와이오밍(Wyoming) 주가 종합 점수 69.49로 미국에서 가장 자선적인 주로 꼽혔다. 이어 유타(Utah), 메릴랜드(Maryland), 미네소타(Minnesota), 버지니아(Virginia), 콜로라도(Colorado), 델라웨어(Delaware), 메인(Maine),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오리건(Oregon)이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반면 뉴멕시코(New Mexico) 주는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에서 최하위를 기록해 가장 덜 자선적인 주로 평가됐다. 그 뒤를 네바다(Nevada), 미시시피(Mississippi), 앤더슨(Alabama), 로드아일랜드

(Rhode Island), 루이지애나(Louisiana), 웨스트버지니아(West Virginia), 애리조나(Arizona), 플로리다(Florida), 미시간(Michigan)이 있었다.

와이오밍 주민들은 연평균 29시간을 자원봉사에 할애하며, 소득의 약 4%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 전체 노숙인의 82%가 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타주는 인구의 47%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46시간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주민의 68% 이상이 이웃을 돋는다고 답했고, 평균 소득의 3.5%를 자선기금으로 기부했다.

메릴랜드에서는 납세자의 16%가 자선단체에 금전 기부를 했으며, 주 전체 노숙인의 83%가 보호시설을 이용 중이다.

자원봉사 및 서비스 부문에서 가장 자선적인 주는 유티였으며, 뒤를 와이오밍, 아이디호(Idaho), 몬태나(Montana), 미네소타, 메인, 오리건, 델라웨어, 알래스카(Alaska), 뉴햄프셔(New Hampshire)가 이었다. 반면 자선 기부 부문에서는 버지니아가 1위를 차지했고, 뉴욕(New York), 메릴랜드

드, 조지아(Georgia), 캘리포니아(California), 와이오밍, 아칸소(Arkansas), 콜로라도,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일리노이(Illinois)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유타는 자원봉사 참여율에서도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버몬트(Vermont), 미네소타, 네브래스카(Nebraska), 캔자스(Kansas)가 이었다. 반대로 자원봉사율이 가장 낮은 주는 로드아일랜드였으며, 네바다, 앤더슨, 뉴멕시코, 플로리다가 뒤를 이었다.

또한 와이오밍과 유타 주민들은 소득 대비 기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아칸소-조지아-뉴욕이 그 뒤를 따랐다. 반면 웨스트버지니아는 가장 낮은 기부율을 보였다.

노스다코타(North Dakota)는 인구 대비 식품 모금 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았으며, 인디애나(Indiana), 오하이오(Ohio), 사우스다코타(South Dakota), 아칸소가 뒤를 이었다. 반면 로드아일랜드와 뉴멕시코, 애리조나, 알래스카, 콜로라도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델라웨어, 몬태나, 버몬트, 와이오밍은 인구 대비 자선단체 수에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유타, 애리조나, 미시시피, 뉴멕시코, 켄터키(Kentucky)는 가장 낮았다.

이번 조사는 미국에서 ‘기빙 투즈데이’(Giving Tuesday) 기부 장려의 날을 약 3주 앞두고,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한 달 반기량 앞둔 시점에 발표됐다. 월렛허브는 “이번 연구가 미국인들에게 연말 선물과 함께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美 포드호 항모전단, 카리브해 전개… 베네수에 최고 압박

미 남부사령부

‘마야 테러 대응 작전 돌입’

‘서던 스피어’ 작전 일환

(DDG-81)과 함께 카리브해 북부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했으며, 최근 남부사령부 작전구역으로 진입했다.

앨빈 휴시 미 남부사령부 사령관은 “우리는 단호한 의지와 정밀한 전력 운용을 통해 역내를 불안정하게 하려는 초국가적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포드 항모전단의 투입은 서반구 안보와 미국 본토 안전을 위한 중대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포드호는 2017년 취역한 미국 해군의 최신 항모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항모로, 5000명 이상의 승조원이 탑승하며 F/A-18 수파호넷, E-2D 호크 아이 조기경보기 등 최대 75기의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다.

남부사령부는 “이 해상 작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국토 방어를 위한 조국과 범죄조직 해체 및 마야 테러 대응 명령을 지원하라고 명령하면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개는 마야 소탕을 목표로 하는 ‘서던 스피어’ 작전의 일환으로, 항모는 카리브해에 배치된 강습상륙 준비단 및 이에 탑승한 해병 원정대 등과 합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군은 카리브해 지역에 배치돼 미 남부사령부 임무, 국방부 지시 작전, 그리고 불법 마약 밀매 차단 및 국토 방어라는 대통령의 우선 과제를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포드 항모는 이지스 구축함 베인보리지함 (DDG-96), 마한함(DDG-72), 윈스턴 처칠함

한센충남
대한민국의 힘!

한센충남! 대한민국을 부탁해!

대한민국 탄소중립경제를 이제, 한센충남이 신바람나는 북극곰의 춤처럼 신바람나게 이끌어 갑니다.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총청남도



Maeil
Maeil Health Nutrition

AUSTRALIFE®



맛있는 호주산 산양유 단백질,
드셔보시면 프리미엄은 확실히 다릅니다.

1 속편한 호주산 산양유
국내 최다* 함유



2 한끼 영양 설계에
식이섬유, 오메가3까지



AUSTRALIFE®



▶보러가기



무료 제품 상담 및 할인 금액 주문 가능!

전화 주문 가능 [무료상담] | 080-860-1539 [내선 2번]

*국내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중, 2024년 7월 기준

데뷔 10주년 몬스타엑스, 팬클럽 이름으로 국내 결식 아동 위해 기부

굿네이버스에 전달된 기부금,
방학 기간 취약 아동 식사 지원으로 사용 예정

굿네이버스는 그룹 몬스타엑스가 연말을 앞두고 국내 결식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데뷔 10주년을 맞은 몬스타엑스는 그동안 팬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팬클럽 '몬베베'의 이름으로 기부를 진행하며 의미 있는 나눔을 이어갔다.

몬스타엑스는 2020년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Asia Artist Awards, AAA)'에서 '올해의 스테이지'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아티스트로 입지를 굳힌



그룹 몬스타엑스의 데뷔 10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 모습.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바 있다. 이어 오는 12월 열리는 '10주년 AAA 2025'에도 초대돼 특별한 무대를 준비 중이며, 미국 최대 연말 음악 축제인 '2025 아이하트라디오 징글볼 투어(2025 iHeartRadio Jingle Ball Tour)'에도 출연해 해외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몬스타엑스가 전달한 기부금은 국내 결식 우려 아동들을 위한 식사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굿네이버스는 방학 기간 결식 위험이 있는 아동들에게 밀키트와 반찬, 식료품 등을 제공하며 아이들이 안정

적으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돋고 있다. 이번 기부는 취약 아동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몬스타엑스는 2020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기부를 시작한 이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왔다. 지난 3월에는 경남 경북 산불 피해 주민과 아동을 위해 1억 원을 굿네이버스에 기부하며 고액후원자 모임 '데네이버스아너스클럽'에 등재됐다. '데네이버스아너스클럽'은 1억 원 이상 기부한 후원자들이 참여하는 모임으로 선한 변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몬스타엑스는 "팬들과 함께했기에 지난 10년이 더욱 특별했다"며 "몬스타엑스와 몬베베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것처럼, 이번 나눔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지동 기자

속초시, 2026~2027년 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 재지정

고령층 병원 이용 전 과정 지원…
보호자 역할 돋는
맞춤형 돌봄체계 강화

강원 속초시는 최근 2026~2027년 '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며 고령층 병원 이용 지원 체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수행기관 재지정 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4월부터 해당 사업을 맡아 온 새설악기독교종합복지회가 다시 수탁법인으로 선정됐다. 또한 복지회 산하기관인 속초유커어센터가 향후 2년간 직접 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속초시가 운영 중인 '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는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어르신을 위해 이동 동행부터 접수, 진

을 돋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기본 요금은 1시간 기준 5,000원, 이후 30분마다 1,500원의 추가 요금이 적용된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 1,000원, 추가 30분당 500원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속초시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부터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

한다. 생계급여 등 각종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장애인은 자격 요건 확인 후 신청 시 차량 지원 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일반 어르신의 경우 기준과 동일하게 교통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 유지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는 단순히 병원까지 이동을 돋는 사업이 아니라, 어르신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정교한 돌봄 정책"이라며 "행정과



속초시가 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 위탁 협약 체결을 갖고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속초시
민간이 함께 협력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께 실질적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그는 또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장지동 기자

레티놀 4X로, 단 7일만에 속부터 꽉 차오르는 밀도탄력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7일 만에 속부터 차올라
4주 후 어려진 피부 나이

10.6%

불 탄력 개선

12.5%

모공부위 피부탄력

12.2%

피부 탄력총 개선



오늘부터 7일 후, 달라지는 피부 변화를 경험하세요!

IOPE

구매 문의 | 080-023-5454, 키카오实业 '아이오페' 체널 판매처 | 전국 아리파마 및 올리브영 매장

| 사용 7일 후,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사용기간] 2023.01.25~2023.03.10 [사용내용] 성인 여성 30명 [사용기관] [주]글로벌의학연구센터 |

영산조용기자선재단, 장애인 거주시설 '두물머리사랑채'에 생활환경 개선 지원

맞춤형 시설 보수로 입소자·종사자 모두의 생활 품질 향상 도모

(제)영산조용기자선재단(이사장 윤홍열 김기돈)이 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 지원을 진행했다. 재단은 최근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두물머리사랑채'를 방문해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전달식을 열며 지역 복지시설을 향한 꾸준한 나눔 실천을 이어갔다.

전달식에는 영산조용기자선재단 조형서 학생인턴과 두물머리사랑채 안선학원장이 참석해 이번 지원의 구체적 내용과 향후 협력 계획을 나누었다. 양 기관은 입소자의 생활 편의 향상과 시설 운영의 안정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두물머리사랑채는 일상 전반에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입소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단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도배와 장판 수리 등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 작업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입소자와 종사자 모두가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돋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재단 관계자는 "도배와 장판 수리처럼 작은 보수일지라도 장애인분들의 삶에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복지시설의 세심한 필요를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왼쪽부터) 조형서 학생인턴, 안선학 원장.
©자선재단

영산조용기자선재단은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목표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재단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지동 기자

전주 예수병원, 개원 127주년 기념예식 개최

127년의 역사 속
현신과 사랑 기념하며
직원·봉사자들에게 감사 전해

전주 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은 최근 개원 127주년을 맞아 본관 4층 예배실에서 기념예식을 개최했다. 1898년 설립된 예수병원은 지역사회와 더불어 의료와 선교의 사명을 이어온 기관으로, 이번 기념예식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병원을 위해 현신해 온 이들의 노고를 기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념예식은 1부 예배와 2부 기념식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예배는 김선중 원목실장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올해 창단 60주년을 맞이한 예수병원 합창단이 특별찬양을 선보이며 예배의 의미를 더 했다. 임현희 예수병원 유지재단 이사장은 '떨기나무 불꽃을 주제로 설교하며, 127년 동안 병원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병원이 감당해야 할 사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2부 기념식에서는 신충식 병원장이 기념사를 전했다. 신 병원장은 "예수병원의 127년은 사랑과 섬김, 그리고 헌신이 쌓여 만들어진 역사"라며 병원



기념예식 후 기념촬영에 임한 관계자들의 모습. ©예수병원

을 위해 현신한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일해온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예수병원이 존재한다"고 말하며 이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행사에서는 병원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직원들에 대한 근속 및 모범직원 표창이 이어졌다. 특히 40년 근속한 직원 3명이 표창을 받아 행사에 감동을 더 했으며, 모범직원 9명이 선정돼 병원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병원 측은 이들의 헌신이 예수병원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완화의료센터에서 꾸준히 섬김을 이어온 이은옥 봉사자와 병원 로비

에서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위로를 전해온 PMC for Rest 오정선 봉사자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병원 관계자는 두 봉사자의 헌신이 환자 치료 과정에서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충식 병원장은 "예수병원의 역사는 건물이나 기록으로 남은 것이 아닌, 이곳을 지켜온 사람들의 사랑과 눈물,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쌓여 만들어진 역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40년 동안 병원과 함께한 세 분의 헌신은 지금의 예수병원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며,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장지동 기자

전국 학교 돌며 청소년에게 희망 전한 '2025 함께치얼업' 캠페인 성료



광주중학교에서 한화생명과 함께한 '함께치얼업' 캠페인 현장의 모습. ©생명의전화

생명의전화·한화생명, 6개월간 청소년 마음 건강 응원하며 생명존중 메시지 확산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가 주관하고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후원한 '2025 찾아가는 청소년 응원 캠페인 함께치얼업'이 전국 학교를 돌며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지지를 전하는 활동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캠페인은 상반기에 진행된 '청소년을 살리는 걸음 함께고워크'를 통해 모인 기부금으로 운영됐으며, 참여자들의 선행이 실제 청소년 지원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전국에서 총 341건의 사연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광주중학교, 화계중학교, 문산수여고등학교, 춘천중학교, 기전여자고등학교 등 5개 학교가 선정돼 생명존중 프로그램이 직접 진행됐다. 생명의전화 관계자들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임직원들은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괜찮아,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의 하루를 응원해"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며 위로와 용기를 건넸다.

선정된 학교 외 7개 학교에도 선물이 전달되며 전국적으로 총 5천여 명의 청소

년이 응원과 격려를 받았다. 학생들에게는 응원 카드와 기념품이 전달됐고, 학교 현장에는 도전존, 응원존, 포토존, 리워드 존, 생명이네 약국 등 참여형 부스가 마련돼 학생들이 스스로를 격려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활동에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그중에는 실제 학부모들도 포함돼 있어 학생들에게 전한 메시지에 더욱 진정성이 느껴졌다.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들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힘을 얻었다"고 말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현장의 공감과 온기 가 캠페인의 취지를 더욱 빛나게 했다.

'함께치얼업' 캠페인은 6월부터 11월까

최승연 기자

희귀난치성 질환 환아 돋는 선행의 발걸음, 월드휴먼브리지 자선골프대회 성료

더해본CC와 함께한 제11회 자선대회, 취약계층 가정 의료비 지원에 온정 모아

국제구호개발NGO 월드휴먼브리지(대표 김병삼)가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어린이들과 그 가정을 돋기 위한 연례 자선 활동을 올해도 이어갔다. 월드휴먼브리지와 더해본CC가 공동 주최한 '제11회 희귀난치성 질환 환아 지원을 위한 자선 골프대회'가 최근 경기 안산시 대부도 더해본CC에서 열리며 따뜻한 나눔의 장을 만들었다. 이번 행사는 아레마티리얼스

(손정완 대표)와 에이디씨엔에스(정성환 대표)가 후원사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대회 현장에는 월드휴먼브리지 김병삼 대표를 비롯해 청주지부 안광복 대표, 인천지부 박장혁 대표, 수원지부 박상영 대표 등 총 120여 명의 후원자가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힘겨운 시간을 견디는 아이들을 돋기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며 따뜻한 연대의 시간

을 보냈다.

현재 우리나라의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은 1,338개로 확대됐지만, 많은 가정은 여전히 막대한 치료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복합적인 증상과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비급여 항목이 크게 늘어나며, 장기 치료가 필수적인 만큼 경제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된다. 이러한 치료 과정은 환아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심각한 심리적 정서적 고통을 불러올 수 있다. 월드휴먼브리지는 이 같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돋기 위해 지난 10

여 년간 약 80명의 환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왔다. 김병삼 대표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 아이들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역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자선골프대회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은 전액 희귀난치성 질환 환아의 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월드휴먼브리지와 더해본CC는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환아와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

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돋는 데 집중하고 있다.

월드휴먼브리지는 전국 18개 지부가 연합해 국내외 취약계층을 돋기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북 지역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비롯해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을 위한 실질적인 나눔을 이어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다.

최승연 기자



후원금 전달식 현장의 모습. ©월드휴먼브리지

이준호 팬모임 '알립준호', 월드비전에 쌀 350kg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 확산

드라마 '태풍상사' 제작발표회 축하 쌀화환, 국내 취약 아동 위한 '사랑의도시락'으로 전달돼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의 흥보대사로 활동 중인 가수 겸 배우 이준호를 응원하는 팬모임 '알립준호'가 국내 식생활 취약 아동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팬모임은 tvN 드라마 '태풍상사' 제작발표회를 축하하며 준비한 쌀화환 350kg을 월드비전에 기부했고, 이 쌀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도시락 형태로 전달될 예정이다. 팬들의 축하 마음이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실질적인 식사 지원으로 이어지며 의미를 더했다.

이번 기부는 팬모임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이준호가 월드비전 흥보대사로서 꾸준히 이어온 선한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팬들의 나눔 활동으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전달된 쌀 350kg은 서울서부지역본부에 200kg, 광주전남사업본부에 150kg으로 전했다.

나누어 배분되며, 월드비전의 '사랑의도시락' 사업을 통해 국내 식생활 취약 아동들에게 건강한 한끼로 전달된다.

팬모임 '알립준호'는 '이준호가 새롭게 시작한 오쓰리콜렉티브(O3collective)의 첫 제작발표회를 함께 축하할 수 있어 뜻 깊었다'며 "흥보대사로서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는 그에게 감동해 후원에 동참했고, 앞으로도 이준호와 오쓰리콜렉티브의 따뜻한 행보를 계속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이준호 배우와 드라마 '태풍상사'를 응원하는 팬분들의 진실 어린 마음이 전달된다"며 "이 따뜻한 마음이 아이들의 하루를 지탱하는 희망의 끈이 될 수 있도록 월드비전이 책임감 있게 전달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월드비전 서울서부사업본부 복지사업팀 홍예진 간사(왼쪽·오른쪽, 동명이인)가 쌀을 받은 모습. ©월드비전

이준호는 지난 2011년 아동 후원을 시작으로 월드비전과 인연을 맺었고, 2012년 흥보대사로 위촉된 이후 꾸준히 국내외 아동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에 참여해 왔다. 그는 글로벌 6K 포 워터 캠페인, 태국월드비전 '하이드 캠페인'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취약 아동 지원에 앞장서 왔다. 이번 팬모임의 기부는 그의 지속적인 나눔이 사회적 참여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최승연 기자

성북구 마약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간담회 열려

고려대 담록, 소형준 구의원과 두 번째 만나

(사)대학을위한마약중독예방재활센터(이사장 두상달 장로, 이하 담록)의 지부인 고려대 담록 대표단이 최근 성북구의회에서 소형준 구의원과 성북구 마약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담록 측은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2일 1차 간담회 이후 이어진 후속 논의로, 지역사회와 청년 세대가 함께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자는 취지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북구 내 청년 청소년 대상 마약예방 교육 프로그램 진행 △지역 학교·복지기관 연계 프로그램 추진 △대학생 주도 캠페인·문화 활동 협력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성북구 소형준 구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고려대 담록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담록

소형준 의원은 "마약중독은 더 이상 일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이다. 21학번) 학생부 대표는 "의회와 대학생이 공식적으로 연결된 만큼, 보여주기식 활동이 아니라 지역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청년 주도형 예방 모델을 만들 어가겠다"고 화답했다.

김진영 기자

"THERE IS A BEAUTY THAT REMAINS WITH US AFTER WE'VE STOPPED LOOKING."

CORY RICHARDS,
PHOTOGRAPHER AND EXPLORER, WEARS THE
VACHERON CONSTANTIN OVERSEAS.

VACHERON CONSTANTIN
GENÈVE

ONE OF
NOT MANY.

전쟁·탄압의 잔해 속에서도 동유럽에서 다시 일어나는 복음의 희망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제니스 앤런(사진)의 기고글인 '포스트 공산주의 유럽에서의 복음(The Gospel in post-Communist Europe)'을 12일 현지시간에 게재했다.



린의 '대숙청' 기간 동안 모든 신앙의 신자들이 처형, 투옥, 극심한 폭력, 그리고 굴라그(Gulag) 수용소로의 추방을 겪었다. 그 이후 수십 년 동안도 기독교인은 차별을 당했고, 감시와 고통을 받고, 교육이나 일자리를 거부당했으며, 공적으로 모이는 것조차 금지되었다. 국가에 대한 충성이 새로운 종교처럼 요구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은 그림자 속에서 몰래 모여 소수의 신자들에게 생명줄이 되었다. 다른 이들은 이웃이나 비밀경찰의 눈을 피해 은밀한 조직을 만들며 교회를 지켜냈다.

“유전자가 아닌 인간성: ‘슈퍼 인간’ 설계의 위험한 유혹”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리처드 랜드 박사(사진)의 기고글인 ‘초인(超人)을 만들어 내는 인간 개조 기술은 좋은 생각일까?’(Is engineering a ‘super’ human being a good idea?)를 14일(현지시간) 게재했다.

랜드 박사는 2013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남부 복음주의 신학교(Southern Evangelical Seminary)의 총장으로 재직했으며 2011년부터 CP의 편집장 겸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의 양만장자들이 지능과 각 문화가 선호하는 특성을 강화한 ‘유전적으로 설계된 인간’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유전공학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정자, 난자, 배아의 유전자 편집이 금지돼 있다. 그런 가운데 실

리콘밸리 스타트업 ‘Preventive’는 유전적 이상을 가진 한 부부와 협력해 유전적으로 조작된 배아를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현재 출생 후 결함을 치료하기 위한 기술(출생 후 DNA 삽입·편집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출생 전 편집은 금지되어 있다.

사실 과학자들과 의료 윤리학자들은 윤리적·과학적 질문들이 해결될 때까지 전 세계적 유예 조치(moratorium)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Preventive의 시도는 실리콘밸리와 그 너머에서 진행 중인 더 많은 노력들의 전조다. 이들은 유전공학과 생식기술의 모든 경계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들이 내세우는 목적은 유전 질환을 치료하고, 유전병 없이 질병에 강한 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된다.

하지만 이러한 실험 전체를 뒤덮고 있는 그림자는 바로 우생학의 부활이다. 우생학은 인간 집단 내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유전 특성의 발생을 증가시키기 위해 번식을 조정하려는 시도를 말한다.



영화 ‘갓카’ 스틸컷 ©소니 픽처스

기 위해 번식을 조정하려는 시도를 말한다.

정자·난자·배아에서 유전자를 식별하고 조작·설계하려는 모든 과학적 시도는 막대한 윤리적 도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많은 부모들은 상업적 매력도 분명하다. 많은 부모들은 지적·신체적으로 우수한 아이를 얻기 위해 거액을 투자할 용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유전 특성이 ‘우선될 만한 것인지 결정하는가? 확

인된 유전적 결함을 치료해 아이를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러나 IQ, 음악적 재능, 운동능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키려는 시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인간이 ‘신의 자리를 넘보는 순간’이라는 많은 인간에게 치명적 유혹이다. 우리는 결국 실패하게 된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놓아야 한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영역을 벗어난다. 절제한 감독 없이 이런 연구가 진행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가슴 아픈 비극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해야 한단 말인가?

이러한 유전적 향상 시도는 1997년 SF 영화 <갓카(Gattaca)>를 떠올리게 한다. 이 영화는 유전적으로 설계된 인간과 자연적으로 태어난 인간이 두 계급으로 나뉜 미래 사회를 묘사한다. 자연 출생자는 2등 시민으로, 우주비행사 같은 명망 높은 직업에 접근할 수 없다.

영화의 주인공은 자연 출생자이며 심장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결함 있는 인간’이었다. 그는 우주비행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사고로 노쇠한 ‘유전적으로 완벽한’ 젊은이의 신분을 빌려 쓰게 되고, 결국 타월한 우주비행사가 된다.

영화는 말한다: 인간의 잠재력은 유전적 ‘걸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 영화의 핵심 메시지를 보여주는 장면은 두 가지다.

첫째, 주인공은 유전적으로 ‘우월한’ 동생과 수영 시합을 벌여 이긴다. 유전적으로 우세한 동생은 외친다. “도대체 어떻게 이 ‘우선될 만한 것인지 결정하는가?’ 확

있는 거야?” 답은 간단하다. 유전자에는 담을 수 없는 인간의 열망과 희망이 있다. 둘째, 마지막 장면에서 우주선 탑승 직전 갑작스러운 유전자 테스트가 실시된다. 주인공은 걸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 동정심을 가진 검사관이 넘어가 주며 말한다.

“기억해. 난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고 오히려 대부분보다 나았어.” 이 장면들은 과학은 인간 정신을 측정할 수 없다. 열정과 목적은 유전자 표로 환산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결론

인간을 ‘설계’하려는 시도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다. 절제한 감독 없이 이런 연구가 진행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가슴 아픈 비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과학은 인간의 정신을 수식으로 환산할 수 없다. 인간은 유전자의 총합이 아니다. 영적·도덕적·정서적 존재다.

최승연 기자

“교회 출석이 현대인의 정신 건강 위기에 핵심 해법이 되는 이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레베카 맥로린(사진)의 기고글인 ‘교회에 가는 것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Going to church could save your life)를 13일(현지시간) 게재했다.

레베카 맥로린은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르네상스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런던의 오크힐 신학대학(Oak Hill Theological College)에서 신학 및 목회학 학위를 취득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필자는 당신이 심각한 우울증을 겪어본 적이 있거나, 혹은 그런 고통을 겪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새 천년이 시작된 이후, 서구 사회 전반에서는 우울증·불안·자살·충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미국에서는 2015년에서 2023년 사이, ‘평생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한 성인의 비율이 거의 10%포인트 상승하여 29%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현재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거나 과거에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7%포인트 증가하여 17.8%가 되었다. 우리는 과거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된 수치심과 낙인을 많이 없앴다. 그러나 그 문제 자체를 줄이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기쁨 유출처럼 계속 번져, 점점 더 많은 사람을 날개가 젖어 추락하는 갈매기처럼 붙잡아 버렸다.

이 정신 건강 재앙은 특히 여성에게 치명적이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인류 역사

상 가장 ‘여성 친화적인’ 문화를 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문화 속 여성들은 점점 더 불행해지고 있다. 여성의 37%가 평생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보고한 반면, 남성은 20%였다.

정신 건강 위기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 더 가혹했다. 2023년에는 12~17세 소녀의 27.3%, 소년의 9.4%가 지난 1년 동안 주요 우울 애피소드를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이는 2004년 수치의 두 배가 넘는다.

또 다른 원인은 결혼의 감소다. 많은 비종교인은 혼외 성관계에 대한 수용이 높아지면서 정신 건강과 행복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지만, 자료는 정반대다. 특히 여성은 성적 파트너 수가 많을수록 우울·슬픔·자살·충동·약물 문제의 위험이 높아졌다. 반대로 결혼은 보호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이제 점점 더 분명해지는 또 하나의 요인은 교회 출석의 감소다.

◆정신 건강을 위한 ‘처방’

필자는 ‘정신 건강을 위한 상위 10가지 비결’과 같은 제목의 글을 수도 없이 읽어보았다. 그중 ‘교회 출석’을 언급한 글은 단 하나도 없었다.

심리학자들은 운동, 수면, 건강한 식단, 요가, 명상 등을 권한다. 그러나 “조직화된 종교”는 어색한 존재처럼 취급된다.

그렇다면 이 우울과 절망을 물아가는 원인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은 코로나19

를 탓하지만, 팬데믹 이전부터 우울증은 이미 “악화되는 공중보건 위기”였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의 폭발적 증가다. 이는 고립, 비교, 다양화된 정신 건강 문제가 사회적 전염처럼 번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다.

또 다른 원인은 결혼의 감소다. 많은 비종교인은 혼외 성관계에 대한 수용이 높아지면서 정신 건강과 행복이 증가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문화 속 여성들은 점점 더 불행해지고 있다. 여성의 37%가 평생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보고한 반면, 남성은 2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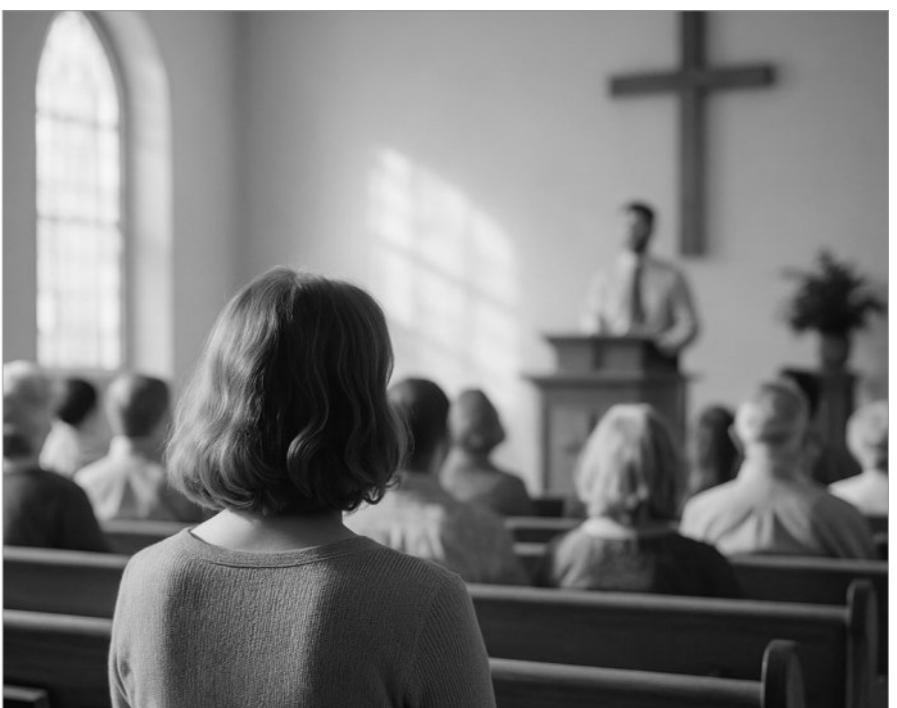
필자는 정신 건강을 위한 상위 10가지 비결과 같은 제목의 글을 수도 없이 읽어보았다. 그중 ‘교회 출석’을 언급한 글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더 분명해지는 또 하나의 요인은 교회 출석의 감소다.

◆정신 건강을 위한 ‘처방’

필자는 ‘정신 건강을 위한 상위 10가지 비결’과 같은 제목의 글을 수도 없이 읽어보았다. 그중 ‘교회 출석’을 언급한 글은 단 하나도 없었다.

심리학자들은 운동, 수면, 건강한 식단,



약처방 꾸준함이 필요하다.

아마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은 몰라요. 나는 교회에 상처가 있어요.” 필자는 심각한 상처를 경험한 이들을 많이 알고 있다. 가정이 사랑과 상처가 함께 존재하는 공간이 될 수 있듯, 교회도 그렇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가정 경험이 가족 자체를 부정하는 이유가 되지 않듯, 아픈 교회 경험도 교회 전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건강한 교회야말로 친구의 공간, 심지어 문자 그대로 생명을 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최승연 기자

SAMJIN 삼진제약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 쿨다운 정



광고심의필: 2022-1618-003300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포티아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브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진, 후 동통(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오통, 근육통, 견통(어깨결림), 타박통, 골절통, 염좌통(넙통증),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1일 3회, 1회 1정 공복(번 속)시에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080-082-1234 (수신자부담) www.samjinpharm.co.kr

‘빅뱅’은 정말 창세기 1장을 부정하는가?

조덕영 박사
창조신학연구소 소장



1. 빅뱅과 성경 계시 비교는 다른 차원이다.

1) ‘빅뱅론은 성경적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성경 계시는 초월(超越) 계시요 과학 영역은 초월에 대응하는 내재(内在)의 영역이다. 초월과 내재는 직접적 비교 대상이 아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신 계시로 믿는다. 반면 과학은 그 피조 세계의 질서를 탐구하는 즉 내재를 다루는 도구의 학문(causa instrument)일 뿐이다.

2) 인류 역사를 통해 목격한 것처럼 과학은 오류를 토대로 발전한다. 즉 과학은 오류를 하나씩 제거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Carl Sagan). 언제나 특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으나 그것은 임정적이다. 가설이 세워지지만 그 가설도 언제나 반박될 수 있다. 이렇게 과학은 언제든지 수정과 반박이 가능한 학문이다(Karl Popper). 반면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다.

3)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과학의 질서를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참된 과학은 당연히 성경적 질서와 조화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무리한 성경 적용이 사이비 종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내재의 도구를 다루는 과학(causa instrument)을 내재의 원인이나 창조주 하나님(prima causa)의 초월 계시에 무리하게 적용하려는 미숙한 짐작은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비 학문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이것이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이다.

2. 정상상태 우주론과 팽창 우주론

1) 우주의 기원에 대한 생각은 ‘우주형태론(cosmograpy)과 ‘우주생성론(cosmogony)이 있을 수 있다. 인간은 오래 전부터 인간이 사는 세

계의 이미지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설명을 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절대자의 창조-설립으로 보려는 관점과 자연-우연 발생의 관점에서 보려는 두 입장이다. 이 두 설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대단히 다양한 양상을 가진다. 왜냐하면 기원론은 필연적으로 지구와 생명과 인간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2) 신화와 종교와 민속과 문화와 사회적 해석 시기를 거쳐 기원론은 고대 헬라 철학자 중심으로 시작된 천동설(geocentric theory)과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heliocentric theory)을 지나며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섰다.

3) 한때 우주기원론은 H. 본디, 프레드 호일(1915-2001)이나 위클라마 싱 그리고 한때 아인슈타인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상상태우주론이 지지를 받는 듯했다.

3. 우주 팽창론(빅뱅론)으로 기울어진 과학

1) 정상상태우주론은 오래가지를 못했다. 1929년 허블(1889-1953)이 도플러 효과에 의한 적색편이(red shift)을 관측함으로써 팽창하는 우주를 발견하고, 1948년 조지 가모프(1904-1968)가 빅뱅(대폭발)에 의한 우주기원론을 제창한 후, 동년 프레드 호일은 정상 상태 이론을 내었으나, 1965년 미국 벨(Bell)연구소 연구원들이 우주배경복사를 발견하여 노벨상을 수상(1970년)하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은 최근에는 과학적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2) 물론 빅뱅 우주론도 이론이기에 여전히 딜레마들이 남아 있다. 빛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인 우주의 지평 밖에 위치하는 사건들에는 어떻게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우주의 지평 문제’ 문제나 어떻게 인류가 우주에 서식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편평도의 문제, 원시 입자의 존재 등에 대한 의문은 빅뱅우주론의 완벽성에도 틈새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계속 던져왔다.

3) 최근 우주 최초시기에 근접한 분자가 발견되었다는 (네이처)지의 논문 기사가 나왔다.

천문학계에서는 수소화헬륨(HeH⁺)을 우주 진화(생물 진화와 혼동하지 말 것)의 시발점으로 여

긴다. 우주가 식고 수소화헬륨과 수소 원자가 결합하면서 비로소 별과 은하의 주원료인 수소 분자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논문 대표 저자인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의 롤프 구스滕(Rolf Güsten) 박사는 “수소화헬륨의 존재는 수십 년간 천문학의 딜레마였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초기 우주의 학제반응에 대한 의심이 해소됐다.”고 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빅뱅은 성경적인가를 생각해보자. 최소한 정상상태우주론보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주장이 과학적으로 더욱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는 데 힘이 실리는 관측이 한 가지 더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전부다. 빅뱅이 성경의 오류성이나 무오류성을 확증하는 주장이라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4. 과학의 본질과 성경 계시의 진리는 직접적 비교 대상이 아니다

1) 혹시 우주의 물질이 한 때 한 점에 뭉쳐 있었다고 하더라도 왜 그곳에 물질이 한 점으로 있었는지? 그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으며 그 태초 물질은 어디서 왔고 무엇이 폭발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덧붙여서 물질을 담은 공간은 어디서 왔고 시간은 어떻게 우주에 들어온 것인지,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섭리 하셨는지 이런 문제들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고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2) 과학적 판단은 언제든지 변하고 수정될 수 있다. 대 과학자 뉴턴(만유인력, 기계론)도 아인슈타인(통일장, 정상상태론 등)도 스티븐 호킹(타임머신 주장 등)도 그들의 이론이나 주장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으며 착각이었다고 고백하거나 수정되었다는 점을 기억하라. 오히려 그렇게 수정되는 것이 건전한 과학이고 과학의 당연한 본질이다.

3) 반면 성경은 여전히 세상과 생명의 기원과 인류의 구원에 대한 진리를 계시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책으로 굳건하다. 그리고 최근의 수소화헬륨의 관측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한 가지 증거라 할 수 있다. 그것이 전부다.

5. 빅뱅은 창세기 1장과 조화될 수 있는가?

1) 그렇다면 이제 빅뱅은 창세기 1장과 조화될 수 있는가 살펴보자. “빅뱅우주론”은 21세기 가장

유력한 과학자들의 신뢰를 받는 우주기원론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다. 또 어떤 타월한 과학자가 나타나 이 이론을 미세 조정할지 아니면 뒤집을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2) 그렇다면 성경은 어떠할까? 필자가 보기에는 성경은 ‘빅뱅’을 긍정도 부정도 요구하지도 않는다. 즉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은 빅뱅의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그 유사한 방법으로 하셨는지 말씀하시지 않는다.

3) 이것은 인류가 찾아서 탐구할 ‘아디아포라’(adiaphora)의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과학적 발견은 어떤 또 다른 결론을 유도해낼지 아무도 모른다. 예전에는 물질과 공간과 시간의 기원에 대해서는 뚜렷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가 없으며 물질은 왜 그곳에 모여 있었으며 빅뱅이 일어난 원인과 동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4) 그리고 성경은 빅뱅과 달리 그저 물질과 공간과 시간의 창조에 있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 사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선포한다.

4) 빅뱅으로 창세기 1장을 설명하려는 것은 초월의 성경 계시를 내재 학문인 과학 아래로 격하시키는 것이며 빅뱅을 비과학적 주장이라고 무조건 반박하는 것도 옳지 않다.

5) 과학적 사실이 밝혀질 때마다 성경의 내용과 해석을 수정해야 한다면 그것은 전혀 계시가 아닐 것이다. 또한 수천 년 동안 교회 전통을 따라 이루어진 성경에 대한 해석 방식을 20세기 시작된 창조과학이라는 운동으로 수정하고 재해석하는 방식도 전혀 옳지 않다. 이 방식도 성경 계시의 초월성을 무시해 버리는 아주 나쁜 해석 방식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과학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 인류는 성경을 아주 어리석게 해석해 왔다는 이상한 결론에 빠져버리게 되어야된다. 그러면 서 과학은 과학 시대의 선지자나 제사장의 자리로 옮겨가 버리게 되는 큰 참사를 만들어버리게 될 것이다.

6) 창조 연대에 대한 자유함

1) 창세기 1-11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창조의 시기를 주전 4000여 년 전으로 보는 것이나 과학이 지구의 나이에 대해 대략 2500만년으로 시작(1850년)하여 2000만년(1862년, 크리스천과학자 Kelvin), 4000만년(1897년, Kelvin), 10억년(1921년, Rayleigh), 45억년(A. Holmes), 최근(2018년) 대략 46억년으로 확장되어 오며 심각한 충돌을 야기하는 딜레마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함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해석의 핵심적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7. 과학으로(빅뱅이든 창조과학이든) 창세기 1장을 재단하지 말라

1) 이제 창세기 1장과 빅뱅의 입장을 결론 내어보자. 즉 빅뱅은 인류가 현재까지 찾아낸 우주 기원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기원론이라 할 수 있다.

2) 다만 이 이론은 물질과 공간과 시간의 기원에 대해서는 뚜렷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가 없으며 물질은 왜 그곳에 모여 있었으며 빅뱅이 일어난 원인과 동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3) 그리고 성경은 빅뱅과 달리 그저 물질과 공간과 시간의 창조에 있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 사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선포한다.

4) 빅뱅으로 창세기 1장을 설명하려는 것은 초월의 성경 계시를 내재 학문인 과학 아래로 격하시키는 것이며 빅뱅을 비과학적 주장이라고 무조건 반박하는 것도 옳지 않다.

5) 과학적 사실이 밝혀질 때마다 성경의 내용과 해석을 수정해야 한다면 그것은 전혀 계시가 아닐 것이다. 또한 수천 년 동안 교회 전통을 따라 이루어진 성경에 대한 해석 방식을 20세기 시작된 창조과학이라는 운동으로 수정하고 재해석하는 방식도 전혀 옳지 않다. 이 방식도 성경 계시의 초월성을 무시해 버리는 아주 나쁜 해석 방식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과학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 인류는 성경을 아주 어리석게 해석해 왔다는 이상한 결론에 빠져버리게 되어야된다. 그러면 서 과학은 과학 시대의 선지자나 제사장의 자리로 옮겨가 버리게 되는 큰 참사를 만들어버리게 될 것이다.

6) 성령께서 주신 역사 속에서 인류에게 지속적으로 내려주신 참된 창세기 해석법을 찾아야 한다. 즉 바른 해석의 문제다. 따라서 빅뱅을 긍정하건 빅뱅에 큰 반감을 가지건 그 같은 태도는 창세기 1장 해석에 그리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없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덤벨을

병문안을 가보면 세상 모든 사람이 환자로 착각이 될 정도로 병원에 환자가 가득한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그때 평소에는 잊고 있었던 내가 건강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는다.

건강이 가장 절실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보다 병을 앓어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건강의 소중함과 운동의 필요성을 크게 깨닫는다. 건강한 몸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다. 그래서 몸의 위기 앞에서 몸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느냐가 건강

의 큰 관건이다.

성공적으로 건강의 위기를 극복해 낸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몸은 자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예수님이 끊임으로 사신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가꾸는 것도 예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생각과 삶이 단순해지고, 자신과 함께 트ред밀에서 달리는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식탁을 대하며 거룩한 포만감을 느끼고 절제하는 축복을 맛보기도 한다.

매일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숨겨 두신

삶의 건강한 달란트를 찾아내면서 하루하루가 작은 축제의 연속으로 변한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우울증과 자살, 심각한 대인 기피, 자기혐오, 멸시 그리고 열등감 등은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다. 많은 사람이 바쁜 삶에 쫓기며 건강을 잊어버리고,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적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친다.

이것은 단순한 신체적 건강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삶과 습관, 행동, 그런 삶의 패턴에 익숙해진 가치와 생각, 그 너머 영적인 건강의 마지노선이라

고 생각해야 한다.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바꾸고, 마음의 변화와 더불어 훈련으로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새로운 행동과 습관을 만들어서 건강한 크리스천의 삶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것은 크리스천인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또 하나님의 사명이다.

신학자 칼 바르트(Karl Barth)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이라고 말했다. 이 말에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동시에 살아야 한다는 지혜가 담겨있다. 필자도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오늘부터

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덤벨을’ 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에게 주신 몸의 성전을 하루하루 건강하게 지켜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님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엡 5:29-30).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영, 혼, 육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기를 건강 전도사 정주호가 응원한다.

정주호 대표(스타트레이, 재활과학박사)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증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꽂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MBTI와 현대사회의 관계성

양기성 박사
웨슬리언교회
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21세기에 들어서며 사람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려는 욕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시 주목받는 심리 도구가 바로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이다. MBTI는 원래 2차 세계대전 당시 사람의 적성을 파악해 직업 배치에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심리 유형 검사로, 응의 심리유형 이론을 토대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MBTI는 직장, 가정, 교회, 학교 등 거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대화의 화두가 되고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문화 코드로 자리잡고 있다.

MBTI의 핵심은 인간의 성격을 에너지 방향(E-I), 정보 수집(S-N), 의사 결정(T-F), 생활 방식(J-P)이라는 네 가지 축으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조합을 통해 총 16가지 성격 유형이 도출되는데, 사람들은 이 유형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고요한 공간에서 생각을 정리할 때 힘을 얻는 내향형(I)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사람들과의 활발한 소통 속에서 에너지가 생기는 외향형(O)일 수 있다. 이러한 차 이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단순히 “이해할 수 없는 성격”으로 치부하지 않고, 서로 다른 사고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MBTI가 널리 확산된 이유 중 하나는 자기 성찰의 도구로서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MBTI는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지도를 제공한다. 특히 청년 세대는 MBTI를 통해 자신의 특징을 발견하고, 타인과의 관계 방식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문화를 만들어냈다. “너 MBTI 뭐야?”라는 질문이 인사말처럼 사용되는 사회적 풍경도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그러나 MBTI의 확산이 언제나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MBTI 유형을 절대적인 성격 규정이나 운명적 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위험하다. 인간의 성격은 유동적이고 다층적이며, 상황과 경험에 따라 변화한다. MBTI는 인간 심리 전체를 설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단지 성향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창문’일 뿐이다. 어떤 유형이 더 우월하거나 열

MBTI 맹신·절대화하면 안돼 올바르게 사용하면 타인 깊이 수용하고 공동체 속 조화 만들 수 있어

등한 것이 아니며, 유형은 절대적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일부 사람들은 MBTI를 일종의 ‘라벨링’ 도구처럼 사용하여 타인을 단정하거나 배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MBTI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그럼에도 MBTI가 현대 사회에서 가지는 긍정적 가치는 분명하다. MBTI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고유한 강점을 발견하게 하고, 타인과의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돋пуска. 교회 공동체와 조직 현장에서

MBTI는 지도자와 구성원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J 유형과 유연하고 즉흥적인 P 유형은 사역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서로의 장점을 빛날 수 있는 협력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또한 MBTI는 상담과 코칭 영역에서도 의미 있게 활용된다. 자신의 감정과 사고 패턴을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MBTI는 무엇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무엇이 자기를 성장시키는지에 대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타인의 감정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지치는 F 유형에게는 경계 설정의 필요성을 일깨워줄 수 있고, 논리 중심의 T 유형에게는 관계적 소통의 중요성을 되돌아보게 할 수 있다. 이처럼 MBTI는 개인의 성찰과 성장을 돋는 도구로 가능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MBTI의 가치는 사람을 규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만드는 과정에 있다. 우리는 각자의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러한 차이는 갈등의 이유가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MBTI는 이러한 이해의 출발점이 될 뿐 아니라, 조직과 공동체,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 건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MBTI는 단순한 성격놀이를 넘어, 현대인의 자기 이해와 관계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도구이다. 그러나 그것을 맹신하거나 절대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MBTI를 올바르게 활용할 때,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타인을 더 깊이 수용하며, 공동체 속에서 더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더 성숙한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아무 일에든 다름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빌립보서 2:3)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마태복음 7:3~5)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 서로 먼저 하라.”(로마서 12:10)

“스스로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너 자신을 살피라. 너희가 서로의 짐을 지라.”(갈라디아 6:1~2)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린도전서 10:24)

社 說

교회 재산 ‘내 것’ 아닌 ‘하나님의 것’

교회 재산을 교인들의 종유로 인정한 법 정신과 판례를 적용하는 사례가 최근 일부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일 한국교화법학회가 주최한 ‘교회 재산의 사유화 방지와 공공성 확보’ 주제 학술세미나에서 서현재 교수는 교인들의 종유 재산을 악용해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며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을 누차 강조했다.

서 교수는 ‘교회 재산은 누구의 소유인가’라는 제목의 기조 발제 중 최근 몇몇 교회에서 일어난 사례를 열거했다. 최근 일부 교회가 문을 닫거나 다른 교회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교인들이 합침해 교회 재산을 사적으로 처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거다. 또 합병이라는 이름으로 위로금 또는 퇴직금을 주고받으며 사실상 담임목사직을 사고파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교인들 간의 분쟁이 격화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교회의 소유와 주권은 사람이나 제도, 재산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이 분명하다”고 전제했다. 다만 “국가법 질서 내에서 교회는 교인 ‘종유’의 재산”으로 규정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이 교회에 속한 모든 재산을 교인 ‘종유’로 규정한 건 목회자 등 대표 자리를 가진 소수에 의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한 것인데 이걸 교인들 마음대로 교회를 처분해도 되는 양 악용하는 게 문제라는 거다.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현금과 기부,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부동산 및 금전채권 등 일체로 형성된다.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와 전절차를 거쳐 교회 재산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 재산은 대표자 명의가 담임목사로 돼 있더라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나눌 수 없다. 교회의 경우 어느 한 개인의 재산이 아닌 교인 전체의 ‘종유’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사실 역사가 오랜 교회의 경우 교회에 축적된 재산은 선대 교인들의 현금과 부동산 가액 상승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그동안 교회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하지 않은 지금의 교인들이 이걸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게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서 교수는 이 문제와 관련 “실제 교인 수가 줄어드는 교회에 새로 전입한 교인들이 다수결로 교회 재산을 처분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교회 재산 소유권은 교회가 평화로울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교인들이 서로 분열돼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분쟁이 발생하면 누구를 종유권자로 보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했다.

이 지적은 교회 재산 사유화 방지와 공공성 확보가 한 국교회에 매우 중요 현안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교회를 새로 설립한 교인들은 기존교회 인원의 3분의 2를 넘어야 이전 교회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다. 이는 한국교회 내 분쟁으로 인한 분열과 재산귀속에 관해 그 이전 50년 동안 이야기 한 법 규정을 바꾼 새로운 판례

라는 의미가 있다. 그 이전 대법원은 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종유(또는 합유)에 속한다고 판시했다(1993. 1. 19. 선고 91다1226). 또 교회의 소속 교단 변경은 교인 전원의 의사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1978. 10. 10. 선고 78다716).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종유’로 귀속되는 게 원칙”이라고 판단한 건 사단에 대한 통일적 규율과 함께, 개별 교인들의 종교의 자유 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교인이 교회를 탈퇴하거나 새 교회를 세운 경우, 기존교회의 ‘종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여할 권리를 잃게 만드는 게 핵심이다. 이는 재산 분쟁과 관련된 사단으로서의 교회에 대해 다른 범위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사법질서의 통일성을 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이런 판례를 적용하는 사례가 최근 일부 교회의 분규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사적 소유인 ‘종유’ 재산을 교회 정관과 총회 결의에 따라 교인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이 문제를 유발한 요인이다.

교회 해산이나 다른 교회와의 합병 시 남아있는 교인들이 교회 재산을 사유화하고 마음대로 처분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근본 원인은 재산 처리에 관한 내용을 교단 한법이나 교회 정관에 세밀하게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해산·합병에 대비하는 정관 규정을 둘 것을 조언하고 있다.

교회 내에서 다툼이 일어나 교인과 교회 재산이 나뉘는 상황까지 가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이로 인해 교인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거나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신뢰가 깨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법정으로 가기 전에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처신일 것이다.

사회법이 교회 재산을 교인들의 현금으로 조성된 ‘종유’ 재산으로 인정한 건 분쟁에 따른 분열을 예방하기 위한 일종의 제동장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성도라면 교회 분규에 있어 법률적 규정을 따지기 전에 그 재산이 현금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금은 성도가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교인들 손에서 떠난 교회의 공적 재산이다. 분쟁의 와중에서 이걸 차지하려 싸우는 건 하나님의 소유를 도로 빼앗아 차지하고 탐욕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물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행 4:32-35). 내가 가진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 나아가 ‘하나님의 것’이란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다. 예배와 복음 전파, 이웃 사랑을 위해 온전히 사용돼야 할 교회 재산을 마음대로 나누고 처분하는 건 주님의 몸을 찢는 행위나 다름 없다. 중단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적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신세가 될 것이다.

듣는 한 국민의 금융지킴이

거친 파도에도 언제나 듣는하게 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어떠한 금융위기에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AI가 합격 예측하고 전문가가 상담…서울런, 수험생 지원

'AI 진로·진학 코치' 신규 도입…500명 시범 운영

서울시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과 입시 전문가 경험을 결합한 맞춤형 대입 지원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말 서울런 회원 중 수험생(2009년생부터) 500명을 대상으로 'AI 진로·진학 코치'를 신규 도입하고 시범 운영한다.

회원이 수능 가체점 성적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1220만건의 합격·불합격 데이터와 1553개 고교 정보를 분석해 정시 지원 방안을 설계한다.

합격 가능 대학을 예측하고 학생부 기반 모의 면접까지 지원한다.

수능 성적 발표 이후 정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일대일 정시 컨설팅'을 운영한다. 20년 이상 경력 현직 진로·진학 교사, 대입 상담 센터 전문 인

력 등 컨설턴트단이 수험생 성적·성진도를 종합 분석해 지원 가능 대학 목록을 제공하고 교차·직장·소신 지원 등 정시 지원 방안을 설계한다.

EBS와 600여 개 고등학교 연 30만건 자료를 분석한 '합격예측 배치자료집'도

함께 제공한다.

수시 마지막 관문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일대일 논술 멘토링'은 서울

런 회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

다. 기존 서울런 멘토단 중 입시 논술 경험과 이해도를 갖춘 멘토를 선별해 논술 전형에 지원한 학생의 목표 대학과 개별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최적의 멘토를 연결한다. 목표 대학 기출예상 문제 등 맞춤형 자료를 제공한다.

지난해 수험생 206명이 서울런 진로·진학 상담에 참여해 총 766회 대입 입시 상담을 통해 입시에 도움을 받았다. 참여자 중 94명이 대입에 성공했다.

지난해 상담 참여자(고3, 진학 상담 3 회 진행)는 "혼자서 검증된 입시자료를 찾기 어려웠는데 컨설턴트 선생님의 도움으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입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학교 밖 청소년, 진학 상담 4회 진행)는 "검정고시생 학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웠는데 개인에게 맞는 방법과 정보를 알려줘서 좋았

다"고 언급했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수능 직후는 수험생들의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라며 "서울런 3.0이 새롭게 선보이는 AI 코치의 기술력과 입시 전문가의 노하우가 접목된 컨설팅을 통해 서울런 회원 학생들이 공정한 기회를 바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다은 기자

기후부 “전기차 올해 20만대 보급”…무공해차 누적 100만대 코앞

전기승용차 17만대…수소차 보급 대수도 반등

전기차 보급이 올해 20만대를 돌파하며 무공해차 누적 100만대 보급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국내 전기차 연간 보급 대수는 20만1000대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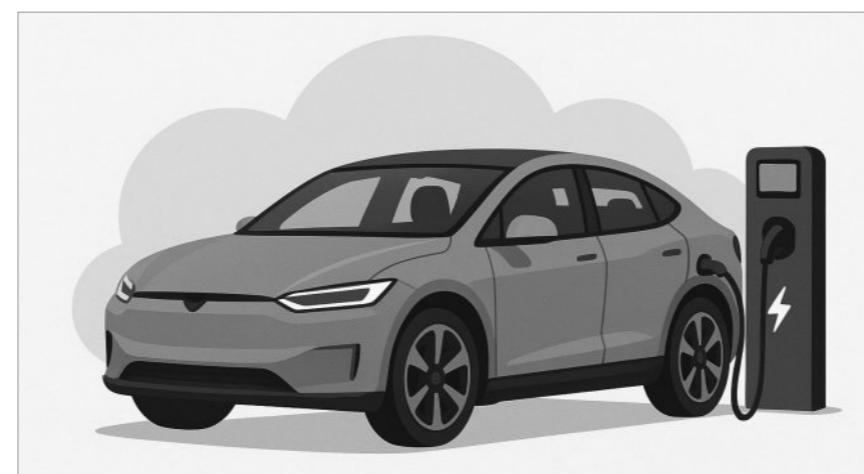
2011년 전기차 보급 사업이 시작된 이

후 연간 보급 대수가 10만대를 돌파하기까지는 약 10년이 걸렸다. 이후 4년 만에 그 2배에 달하는 20만대 보급을 달성한 것이다.

수소차 보급도 늘었다. 수소차는 2021년 연도별로 보면 전기차 보급은 2021년 8500대에서 2022년 10만3000대로 늘었다가 2023년 4700대, 2024년 3800대로 보급이 감소했지만, 올해 5900대로 다시 반등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는 연초 보조금 지원 확정과 제조사 신차 출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까지 보급된 무공해차는 총 75



만대로, 지금과 같은 보급 추세가 이어지면 내년 초에 누적 100만대 보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후부는 내다봤다. 기후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기존 보조금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보다 효과적인 지원 수단을 발굴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도 활발히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서다은 기자

서울장학재단, 올해 AI 인재 275명에 장학금 21억 지급

서울시가 올해 인공지능(AI) 인재 275명에게 21억원 규모 장학금을 지급한다.

서울장학재단은 16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대목적홀에서 '2025년 2학기 AI 서울테크 대학원 장학금 증서 수여식'을 열고 AI 분야 이공계 석박사 대학원생 215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지난 1학기에는 6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올 한 해만 275명 장학생에게 총 20억7500만원 연구 장려금을 지원했다.

1학기에는 석사 과정 신입생 60명에게 1인당 연 1000만원 장학금을 지원했다. 2학기에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일반대

학원에서 이공계 분야 석사 135명과 박사 80명 등 215명에게 한 학기 기준 석사 500만원, 박사 1000만원을 지급한다.

'AI 서울테크 대학원 장학금은 서울시의 '이제는 이공계 전성시대'라는 정책

은 약 34만명이며 이 중 석박사급 인력이 약 9만6000명을 차지한다.

인공지능 연구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재단은 박사 과정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향후 고급 연구 인력(post-doc) 까지로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수여식에서 대표로 소감을 밝힌 한

장학생은 "산업의 핵심이 돼 가는 AI 분야에 특성화된 장학금 덕분에 미래 산업의 주역이라는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며 "혁신적인 AI 기술 개발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남성숙 서울장학재단 이사장은 "2026

년에는 석사 2000만원, 박사 4000만원, post-doc 6000만원으로 장학금을 대폭 확대해 우수한 AI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전 세계가 AI 인재 확보 경쟁을 벌이는 시대인 만큼 서울의 미래는 여러분과 같은 이공계 인재에게 달려 있다"며 "AI 서울테크 대학원 장학금이 학비 걱정을 덜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생각과 실천이 서울시 첨단 산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루리 기자

위암, 국내 암 발생 5위…10%는 4기에 발견
40세 이상, 2년마다 한 번 위내시경 받아야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과 함께 '6대 암'으로 불리는 위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조기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암은 특히 한국인들이 조심해야 할 암으로 꼽힌다.

17일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인의 위암 연간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27명으로 몽골,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다.

중앙암등록본부가 지난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위암 진단 환자는 모두 2만9487명으로 전체 암 발생 환자(28만2047명)의 10.5%를 차지했다.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에 이어 암 발생 순위 5위를 기록했다.

또 위암의 2018년~2022년 위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78.4%로 2001~2005년(58.0%)과 비교할 때 20.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암검진 사업 등으로 조기에 위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의료기술 발전으로 완치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위암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검사는 위내시경이다. 엑스레이나 CT(컴퓨터단층촬영)는 병변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지만, 위내시경은 소화관 내 병변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위내시경은 입을 통해 내시경 기구를 삽입해 식도, 위, 심이지장을 직접 관찰하면서 염증이나 종양 등을 진단하는 검사 방법이다. 필요에 따라 조직검사나 헬리코바티 피로리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위암은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 만큼 40세 이상부터는 위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만큼 증상이 없어도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을 통해 정기검진을 받는 게 좋다. 실제 위암 환자의 약 10%는 진단 당시 이미 4기로 수술적 완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발견된다.

초기 위암은 내시경적 절제나 수술 치료만으로도 완치될 수 있지만, 증상을 간과하다가 진행된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하게 될 경우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니는 만큼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전이가 있는 4기 위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10% 정도로 매우 낮다.

의료계 관계자는 "위암은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 만큼 40세 이상부터는 위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만큼 증상이 없어도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게 좋다"며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해 만 40세 이상이면 2년마다 한 번 위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루리 기자

항산화 효과, 일반 마늘의 5배!

판매처 : 153 헬스코리아 주식회사
상품명: 153 새싹마늘 원산지: 국내산 포장재질: PET 보관방법: 구입 후 냉장보관 생산자: 두두아쿠아
인증번호: 10307836호 허가장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203-9-10 소비자상담: 070-7895-1597
*부록 체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씻어서 드세요.

제품 구매하러 가기 →

매일 먹는 마늘, 오늘부터
153새싹마늘로 바꿔보세요!

화학비료&병충 ZERO

물고기와 식물의
공생 시스템으로 키운
100% 친환경 새싹마늘입니다.

영양소의 극대화

영양소를 빠르게 흡수해
높은 영양가와
신선도를 자랑합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법

물 사용량 및 농업 폐기물을
최소화하여 환경과 사람에게
건강한 농법입니다.

특허받은 아쿠아포닉스 재배 방식

깨끗한 물에서 화학비료와 병충해 없이
건강한 새싹마늘만을 키우는 재배 방식입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특허번호 : 제10-1581729호

구매 문의 **070-7895-1597**

심리적 상담 치유 (예언의 말씀)

마음 속 깊은 곳에 뿌리박힌 고질병을 혼자 고심하지 말고 (한문으로)
“이름과 나이”만 알려 주시면 고목 나무에 꽃이 피어 인생길을 밝게 살 수 있도록 치유하게 됩니다. 성격, 사명, 출세, 성공, 실패, 건강, 병약, 단명, 장수, 가정, 자녀, 부모, 부부의 금실, 이혼, 위급한 사고,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밝히 치유를 받게 됩니다.

나는 몸이 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자. 사도 바울은 고백 하기를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게 된다”고 했다.

고전4:10

송백 목사 010-3809-6487
충북 단양군 대강면 두음 6길 4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1.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2. 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3. 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4. 주소: 충북 영동읍 479-8번지 1건.
5. 토지: 2,756m² (833.69평)
6.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² (139.75평) + a(40평)
7. 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낯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기타]
※경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령으로 은퇴준비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일어나라 빛을 알하라 이 는 네 빛이 이로웠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 음이 나라(사60:1)



다문화복음방송
(Multicultural Gospel Broadcasting Company)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가나 국기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대표 김 덕 겸 목사

**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교회담보대출: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 교회: 연 3.99%~5.49%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셉 목사

문의전화: 010-9166-5600, 010-8652-5600
TEL: 031-439-5555 FAX: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moon490301@hanmail.net

(사)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1995년 개척하여 2번의 건축을하고 30년 동안 부흥·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부흥회

부흥회 지원

감사 약력

20년동안 1000회 이상 부흥집회 인도
· 한생교회 담임목사
·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사) 현국기독교부흥협의회 56대 대표회장
· 現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 Good TV 부흥선교협의회 대표회장
· 1995. 9 개척
· 2000. 4 1차 성전건축
· 2008. 1 2차 성전건축

방향 및 성령의 역사

· 철저히 개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 개교회의 목회방침에 따라
·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짐
· 학생, 청년이 꿈을 꾸고, 길이 열리며 부흥·성장함
· 영·육·물질의 문제가 해결,
기둥이 세워지고 축복의 증거가 나타남
· 사탄의 역사가 끝어짐

신청 방법

· 이승현 목사: 010-8913-7777
· 한생교회: 032-512-3375

한생 교회

·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낙도·오지교회
· 3無부흥회:
사례, 숙소, 식사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바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른신께 편안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께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모십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

- 외국어 성경 생생한 원어 발음
- 해외 기독교 서적도 쉽게 번역
- 스캔, 음성, 사진 3가지 방식으로 통 번역
- 영어, 국어, 한자 전자사전 기능으로 문해력 도움

신학생들과 해외 사역자들에게도 유용

-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 선교지에서도 언어 장벽 해결
-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독자 특별 혜택
정상가 398,000 → 할인가 259,000원
문의 010-9965-0961

빠른구매

AI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1.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영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2. 인터넷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3.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4.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5. 36,000자 토플, 토익 등 대용량 단어장

AI Voca Pen
국내 최초 생성형 AI 언어 번역기 - 보카펜

천한필 목사 신간 『이단 침투』 2쇄 출간

세움북스가 천한필 목사의 신간 『이단 침투』 2쇄를 출간했다. 이 책은 저자가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실제로 경험했던 사마니즘, 통일교, 구원파, 신천지, CBA, 신사도운동 관련자들과의 만남을 바탕으로 쓰인 생활 밀착형 이단 연구서로, 이단 문제에 악숙하지 않은 독자들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입문서이다.

저자인 천한필 목사는 이 책에서 “이단은 더 이상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이단과 사이비 문체는 이미 일상과 사회 깊숙이 스며들어 있으며, 개인과 가정은 물론 교회와 정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이단은 언제든 우리의 약한 틈을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경고한다.

『이단 침투』는 이단 문제를 주상작교리적 이해로만 다루지 않는다.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부딪쳤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단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며, 어떤 방식으로 신앙을 훼손하는지를 구체적 예고소드와 질의

응답 형식으로 설명한다.

독자들은 책 속에 등장하는 장면과 대화를 통해 이단의 본질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으며, 복잡한 이단 연구서를 읽지 않아도 생활 현장에서의 경계법을 쉽게 배울 수 있다.

각 장에는 ‘나눔을 위한 질문’이 실려 있어, 소그룹 성경공부·청년 모임·사회적 교육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다. 저자는 이를 통해 교회가 이단 문제를 단순히 ‘정보 전달’ 수준이 아니라 신앙의 실천적 훈련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돋는다.

특히 2쇄를 맞은 이번 책은 이단 경계주일(가정의 달 5월), 수능 이후 고3 학생 교육, 청년 신앙 정립, 초신자 양육 등 교회의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필독서로 추천된다.

천한필 목사는 책에서 “이단은 개인과 가정, 심지어 교회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며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이단은 항상 친근한 얼굴과 일상의 언어로 접근한다”며, “문제 발생 이후의 대처보다 먼저 알아보고 차단하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어 “교회 현장에서 이단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모든 목회자와 사역자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며, 한국교회 안에서 본서가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판사 세움북스 측은 “『이단 침투』는 단순한 이단 정보 책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리얼 스토리 기반의 연구서”이며 “누구나 쉽게 읽으면서도 깊이 있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 교회 교육 현장에 널리 보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천한필 목사는 현재 경기도 군포시 소재 예다임교회(예장 합신) 담임 목사다.

노령구 기자



천한필 목사 저서 『이단침투』
©출판사 세움북스

11월, 작가들의 말말말

누가에게 바른 행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편에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이러한 긍휼에 행위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신자 공동체로 초대하는 보편적 방법이다. 대개를 생각하지 않고 복을 벌며 베푸는 행위,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친절과 관용을 베푸는 행위, 일흔 번씩 일곱 번 용서하는 무한한 사랑, 자신의 소유로 풍성히 섭기는 행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위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필수 요소다. 누가에게 바른 감정은 바른 생각과 바른 행위를 결합한 것이다. 제자는 병자를 위한 예수님의 열정과 잊어버린 자를 위한 하나님의 열정을 행해야 한다. 그러한 열정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법을 지속적으로 배우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으로, 누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사람은 사고와 행동을 강권한다. 열정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메리 H. 셔츠 『누가복음』

신간

종교개혁 시대의 영성



교회의 생명력이 흔들리고 있는 오늘, 많은 성도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 있다. 알리스터 맥그래스의 신간 『종교개혁 시대의 영성』은 이 질문에 대한 깊고 선명한 답을 제시한다. 저자는 현대 복음주의 신앙의 뿌리인 루터, 칼뱅, 초빙글리 등 종교개혁자들의 영성을 새롭게 조명하며 성경의 진리와 현실 세계를 동시에 끌어안는 살아 있는 신앙의 길을 보여준다.

이 책은 종교개혁이 단순한 교리 논쟁이나 제도 개혁이 아니었음을 강조한다. 개혁자들에게 ‘영성’란 수도원의 고립된 내면 수련이 아니라 도시, 일터, 가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실천적 삶 전체였다. 그들의 영성은 성경을 불들어 현실을 회피하지 않았고, 신학적 깊이와 세상 속 참여가 긴밀하게 맞물려 있었다.

맥그래스는 종교개혁 영성이 현대 교회가 다시 불들어야 할 구체적 대안임을 역설한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종교개혁 영성은 성경적 순전성과 현실적 관련성이라는 두 쪽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1장 「어두움이 물리고 빛이 밝아오다」에서는 종교개혁 영성이 도시 생활, 공동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태어났음을 밝힌다. 개혁자들은 책상 위에서 신학을 만든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빌 딛고 복음을 해석하고 적용했다.

2장 「종교개혁 영성의 기본 원리들」에서는 왜 ‘순전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의 교회를 살리는 길인지 설명한다. 순전성은 단지 보수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연결되면서도 변질되지 않는 복음의 자속성을 뜻한다.

3~4장에서는 루터가 강조한 ‘십자가 신학’을 중심으로, 고난과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신앙의 본질을 다룬다. 십자가는 신학의 중심일 뿐 아니라, 삶의 모든 해석 기준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한다.

오늘날 많은 성도는 염려와 두려움, 불확실성 속에서 신앙

의 뿌리를 흔들리고 있다. 저자는 루터와 칼뱅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소개하며, 견고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안에서 의심을 이기고 살아가는 신앙적 토대를 제시한다.

5장 「신앙, 의심 그리고 열망」은 현대 독자들에게 특히 가까이 다가오는 장이다. 신앙인은 의심을 모든 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의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훈련된 사람임을 강조한다. 종교개혁 영성은 세상을 도회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 열린 자세를 취한다.

6장 「도시 속의 신앙」에서는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발견하고 긍정할 줄 아는 균형 있는 영성을 설명한다.

7장 「일상 세계 속의 신앙」에서는 종교개혁의 노동윤리를 소개하며, 일어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섭기는 영적 행위임을 말한다. 노동은 곧 찬양이며,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증언이라는 통찰은 오늘의 직장인 그리스도인에게 큰 울림을 준다.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성례의 의미인 은혜의 표지이자 믿음을 강화시키는 영적 자원을 해설하며, 성례의 회복이 현대 교회의 신앙적 견고함을 되살리는 중요한 길임을 말한다.

최승연 기자

“생각하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 할 수 없도다”(롬 8:18)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대할 때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틀림없이 어떤 고난에도 끄떡도 않는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평상시에 일어나는 사소하거나, 별것 아닌 일들에 익숙해진 사람이다. 그러나 이 구절은 성령의 도움이요, 이끄심으로 기록된 것이다. 가장 ‘가혹한 고통에 시달린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고난 후의 ‘영광은 상상이 아닌 수많은 시간 육신의 고통을 통하여하면서 체험한 ‘확신입니다. 때때로 저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잔혹한 고통이 이어질 때,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가?’라며, 의문과 의심이 들 만큼, 깊은 상처와 절망의 늪으로만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면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지 실망하며 한탄할 때, 그때도 저를 위한 많은 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함께 계셔 연약한 손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김인자 ‘멈출 수 없는 눈물’

과거를 그리스도께 맡기거나 미래의 영생을 그분께 의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젯거리들을 맡기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자리를 바꾸어 주시는 일은 현재 일어나는 일입니다. 삶을 그리스도께 드린 후에는 나의 삶이 이제 그분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계약에 따라 믿음으로 나 자신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곧 그분의 소유입니다. 내 모습이 대로,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소유입니다. 내 시간도 이젠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거처와 직업도 그분이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사시고 그분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회를 드릴 만큼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실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그분은 우리와 자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로버트 맹어 ‘거지인가, 왕자인가?’

기독교학술원, 개혁주의 영성총서 제12권 출간

『한국교회의 새 방향을 향한 한국교회의 과제와 소망』



기독교학술원(원장 김영한 박사)이 개혁주의 영성총서 제12권 『한국교회의 새 방향을 향한 한국교회의 과제와 소망』(김영한 외, 기독교학술원 편)을 최근 출간했다.

지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열린 5차례의 포럼에서 발표된 교계 원로 학자 및 목회자들이 발표한 자료들을 편집해 이번에 발간한 것이다.

제1부 ‘2016년 한국교회와 사회의 과제와 소망’ 개회사에서 김영한 원장은 한국교회는 예수의 자비비움을 본받아 사

회의 소외자들의 편이 되고 어둠을 밝히자고 제언했다.

민경배 교수(전 서울장신대총장)는 국민들이 정치적 표명에서 서로 예의를 지킴으로써 타인의 영역에 존경을 표해 21세기 세계주도의 나라를 만들자고 역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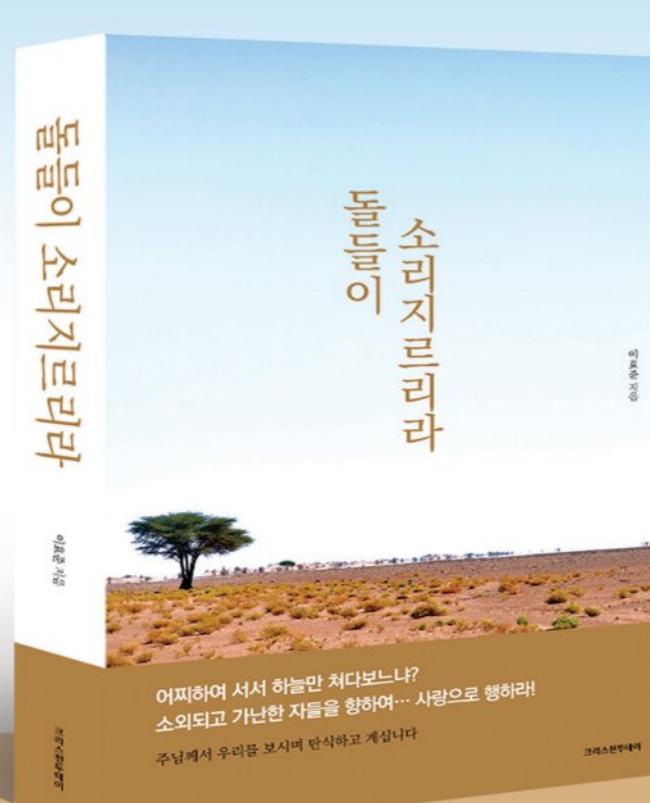
제2부 ‘2017년 한국사회를 향한 교회의 과제와 소망’에서 박봉래 교수(전 감선대 총장)는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친명했다. 그리고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를 위해 교회의 간증운동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제3부 ‘2018년 한국사회를 향한 교회의 소명’에서 김상복 목사(전 험불트리니티 총장)는 교회는 세계를 품고 다양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4부 ‘2019년 한국사회를 향한 교회의 소명’에서 이정익 목사(신촌성결교회 원로)는 한국사회를 향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종교다움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친명했다. 그것은 진정성, 공감성, 일치성, 정체성, 성결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제5부 ‘2020년 한국사회를 향한 교회의 소명’에서 정성구 박사(전 총신대 총장)는 전례나 비전이나 확실히 구별해야 한다고 보았다. 교회와 정부는 어느 쪽이 상위라는 개념은 옳지 않으며 그 둘은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의 기독교학술원 교무부 02-570-7548 김진영 기자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추천사

장로님께서 질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정교(구제군 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춘일 목사(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 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울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창원내산교회)

날씨를 예상하세요

조나단 에드워즈와 부흥의 중요성 (7)

성령의 이러한 증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느끼고 압니까? 이처럼 영광스러운 진술을 우리의 가련하고 작은 체험의 수준으로 저하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같은 문단에서 그는 존 플라벨(John Flavel)이 여행을 하던 중 겪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체험을 언급합니다.

다음은 자기 아내에게 주어졌던 놀라운 체험들을 그가 변호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아내의 체험을 상세히 기술한 다음에 그 체험들을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아직도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환각 상태와 공상과 지나친 상상력의 소치로 기각시켜 버리려는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에드워즈가 그것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을 들어 보십시오.

“그러한 것들이 광신이거나 병든 뇌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나는 내 뇌가 그런 병에 오래 걸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것이 정신 착란이라면, 인간 세계가 이러한 자비롭고 온유하고 덕스럽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정신 착란으로 다사로잡힐 수 있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설명한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진 종교에 대한 관념은 어떤 것입니까? 다음의 성경 표현들과 부응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 영광 충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과의 영광을 알게 하심,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

니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한 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야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마음에 떠오르는 샛별 등등입니다.

만일 지금 언급한 이 경우들이 이러한 표현들과 서로 상응하지 않는다면 그것들과 상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의

영혼의 양식(28)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본문

예대상 29장 10-14절

서론

추수감사절은 단지 “한 해를 잘 먹고 잘 지냈습니다”라고 인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또 풍성하게 거둔 사람만 감사하는 날도 아닙니다. 오히려 병원 중 환자실을 거쳐 나온 사람이 “잘아 있는 거지” 그러나 성경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묻습니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는가?”

구나”를 다시 깨닫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버티고 견뎌서, 내가 일어서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러나 성경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묻습니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는가?”

본문

오늘 본문인 예대상 29장은 이 질문에 대한 믿음의 답을 보여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들이 마음이 감동되어 기쁨으로 드릴 때, 다윗은 곧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대상 29:1)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고백도 같습니다. 내 삶의 시작도, 과정도 열매도 결국 하나님께서서 왔습니다. 이 사실이 마음에 새겨질 때, 억지로 짜내는 감사가 아니라, 은혜를 깨달은 영혼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사가 시작됩니다.

1. 다윗 생애의 마지막, 성전 준비

예대상 29장 1절은 다윗의 삶과 사역을 정리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22장부터 시작된 성전 준비의 이야기가 절정에 이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은 뚜렷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전쟁의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성전을 짓지 못하리라.”(대상 22:8)

여기서 우리는 현실적인 신자의 고민

을 봅니다. “나는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기도도 했고, 하나님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은 네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합니다. 첫째, 마음이 상하고 서운해져서 주저앉는 사람, 둘째, “내가 직접 하자는 못해도,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겠다”라고 방향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두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직접 짓지 못하면, 준비하는 사람이라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하신 솔로몬을 위해,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찰 만큼의 준비를 해 놓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셨지만(대상 22:10), 그는 아직 어리고 미숙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회중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29:1) 이 말은 단순한 아버지의 걱정이 아닙니다. “이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일입니다.”라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다음 이어지는 고백

이 중요합니다. “이 공사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 이라.”(29:1) 성전은 하나님께 임제하시는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 공간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잘 짓지”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자”고 호소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나는 교회를 ‘내가 다니는 종교기관’으로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집으로 보는가?”

2. 감사의 ‘상황’이 아니라 ‘관점’이다

오늘 시대는 참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감사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차이는 가진 것의 양에서 나는 차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그 시선을 이렇게 돌려놓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다.”(11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 아니다.”(14절) 즉,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맡겨진’ 것이다. 그 시작과 공급자는 하나님이다.” 이 관점이 바로 감사의 영성입니다.

3. 다윗의 혼신 3단계, 사랑 → 자원함 → 기쁨

예대상 29장은 혼신이 어떻게 부담에서 기쁨으로 바뀌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혼신”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어깨부터 무거워집니다. “또 내놓으라는 거구나. 또 시간을 빼앗기겠구나.”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혼신은 기쁨을 빼앗는 사건이 아니라, 기쁨이 폭발하는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그 과정을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사랑의 혼신 –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므로”(29:3)

다윗의 혼신은 의무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므로…”(3절) 여기서 “사랑하므로”라는 것은 마음이 기울고, 기뻐하고, 스스로 원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수고는 노동이지만, 사랑이 있으면 수고는 기쁨이 됩니다. 다윗에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실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준비한 것 외에도 내 사용한 금은을 더 드리노니.”(3절)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곧 오빌의 금 삼천 달란트에 참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트와 순은 철천 달란트를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오빌의 금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 왕들이 자신들의 보물창고에 따로 보관하던 최상급 금이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말하면,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비싼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태도를 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고를 드리겠다는 마음, “남는 것 여분, 쓰다 남은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다는 결단. 그 자체를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기쁨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사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 것이라.”(시 27:4) 그는 왕궁보다 성막을 더 좋아했습니다. 권력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이 혼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혼신은 의무이지만, 사랑이 있는 혼신은 예배가 됩니다.

2) 2단계 자발적 혼신 – “다 즐거이 드렸고”(29:6)

다음 장면은 지도자들의 혼신입니다. “방배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다 즐거이 드렸고.”(6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즐거이 드렸다”입니다. 9절의 “자원하여 드렸다”와 같은 어근입니다. 그들이 드린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금 5천 달란트(약 170톤), 은 1만 달란트(약 340톤), 그 외에 동과 철 보석들. 오늘 시세로 환산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수십조 원 이상의 규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규모보다 마음의 상태를 더 강조합니다. “백성들도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나.”(9절) 여기서 “기뻐하였으나”는 드리고 나서 한숨 쉬며 후회하는 기쁨이 아니라, 드리는 과정 자체가 기쁨이 되는 상태입니다.

왜 기뻤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한다는 감격, 하나님의 집을 위해

쓰임받는다는 영광,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는 자녀의 기쁨,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혼신은 우리의 것

을 빼앗기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되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 기쁨은 다윗에게까지 흘러갑니다.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니라.”(9절) 백성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자,

그 기쁨이 지도자에게도 번지고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의 분위기가 감돌니다. 3절의 사랑이, 6절의 자원함을 낳고, 9절의 기쁨과 온전한 마음으로 완성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혼신의 흐름입니다.

결론

4. 다윗의 찬양(10-14절) — 혼신의 결론은 하나님께로

이 정도 규모의 혼신이라면 왕으로서 “여러분 정말 훌륭합니다! 우리 민족, 정말 대단합니다!”라고 백성을 치켜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 법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선을 백성에게 두지 않습니다. 곧바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10절) 다윗은 알았습니다. 백성이 드린 혼신도, 사실은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혼신의 결론을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돌립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다 주께 속하였사오나.”(11절) 다윗은 왕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참된 왕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전쟁의 승리도, 왕국의 번영도, 지금 눈앞에 쌓인 모든 재물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이시나.”(12절) “부와 귀”는 단지 돈과 명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삶의 기회, 건강, 사람들의 신뢰, 위치, 영향력까지 포함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드림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신은 자랑이 될 수 있고, 무거운 짐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마무리 기도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마음을 주소서. “주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예배와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원호 목사 (서울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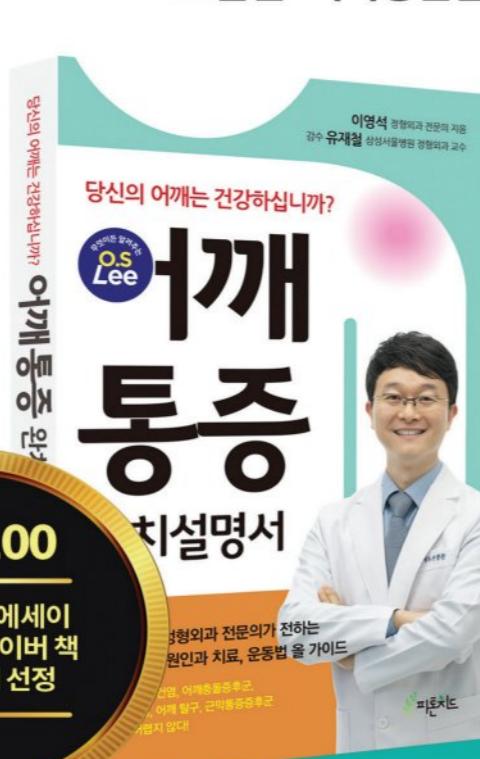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을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TOP 100
YES 24 건강에세이
건강 기타 / 네이버 책
베스트 도서 선정

은혜의샘물 사람은 무엇이 필요한가? (2)

셋째 정열에 불타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밑 불이 강해야 생나무를 태웁니다.' 밑 불은 자신의 불입니다. 자신의 불이 약하면, 남에게 불을 주지 못합니다. 밑 불이 약한 사람이 선불리 남에게 불을 주려 하다가는 자신의 불마저 꺼뜨리고 맙니다. 자신의 밑 불은 믿음의 불이요, 성령의 불이요, 남을 사랑하는 정열의 불입니다. 이 불이 강하지 못하면, 미움과 증오와 유혹과 시험과 공격과 비방과 혐담과 소외와 갈등과 같은 생

나무를 헤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에 오히려 먹히고 맙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이 사랑의 불로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에는 타인의 마음에 불을 던질 수 있습니다.

당하면 그 피살자의 친인척에 속한 남자들은 복수의 의무를 지니게 되며, 이 복수의무가 주어지는 혈연집단을 '카모사'라고 합니다. 만약 복수하지 못하거나 복수에 소홀하면 그 카모사의 명예는 형편없이

없었으며, 그 피해에 대한 보복은 이미 구약성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고엘 하답'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피의 복수자'라는 뜻입니다. 피의 복수자란 복수의 의무를 지난 가장 가까운 근친을 말합니다. 이 사람의 복수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법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같은 동해상해법입니다. 가해자에게 동일한 해를 입히는 처벌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불을 세상에 나누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과실 치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파성을 마련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혁명적인 교훈은 피를 피로 갚으라는 사마의 계율을 바꾸어 피를 용서로 갚으라는 사랑의 교훈을 선자 가의 희생으로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랑의 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불을 강한 밑 불로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불을 세상에 나누어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제공

향유복합

원죄의 3대 특징



죄의 유전성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그것은 현대인들은 한 개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보다 더 잘 설명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인류는 모두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서 한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에이즈도 모태 감염으로 자녀에게 유전됩니다. 자녀들은 억울합니다. 자녀들은 잘못한 것 이 없지 않은가!

그러나 아쩔 수 없는 섭리이며 운명입니다. 원죄는 영혼의 에이즈입니다. 그 결과는 유전되며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산마루서신 <http://www.sanletter.net>)은 이 땅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과의 영적인 대화이며, 진실한 만남이며, 사랑의 소통입니다. 참된 삶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과의 진실한 주님 안에서의 대화입니다.

죽음이 없도록 지름 받은 인간이 왜 죽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원죄 때문이라는 것보다 더 잘 설명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죽을 운명을 당연시하여 죽지 않게 지름 받았다는 사실을 더 믿지 못하는 참혹한 현실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10)

신앙과 가정

성령님의 통제

성령께서는 종종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시고 통제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통제가 한 번 있을 때 한 번 더 부서지고 한 번 더 녹아져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유용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혼은 여러 번의 통제와 여러 번의 파쇄를 거쳐야만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성령님의 통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고 말씀에 거스르지 않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과 이론을 다 파하여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복하게 될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사역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영으로써 사람을 다룰 수 있으려면 온전히 날마다 자아를 바위 드리고 성령이 우리를 뚫고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영혼을 만질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성령께 민감한 사람이 되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나타나도록 최선

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통제를 통해서 말로만 돋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으로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루심을 기쁘게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으실 것입니다. 오직 자아의 손실을 많이 본 사람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안식을 주게 될 것입니다. 만일 사역의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열

매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 자아는 온전히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만 할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 자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를 주 안에서 잊을 때만 주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미 정과 육심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로 무릎을 끓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제공

교회오빠

장엄 실천

로마서 12:1~2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으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나라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의 서신서들은 대체로 이론과 실천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론, 즉 복음의 일반적 서술이 있은 후에 거기에 근거하여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신서의 어느 다른 곳에서도 본문과 같이 장엄하게 복음과 삶을 연결

하고 있는 않습니다. 이것을 '장엄 실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무게 있게 장엄하게 몸의 예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실천은 실천인데, 예배적 무게와 의미가 그대로 살아있는 실천입니다. 실천이 곧 예배인 실천입니다.

걱정과 염려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드려놓고도 곧 나가서 세상을 본

받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첫째로, 이 세대는 포기주의입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하나님은 너무 작고 세상은 너무 커 보입니다.

세상의 영향력과 그

들의 복음에 대한 반대가 너무 강하고

크기 때문에 결국 믿음을 포기하거나 가

슴 속의 밀실 속에 믿음을 조용히 가두

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밀실에 가지 않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둘째로, 극단주의입니다. 이것은 십자군적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악마적인 세상에 당장에 나가서 칼을 휘둘러 다 진멸해

버리고자 하는 종동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나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범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세상을 파괴하고자 하는 충동을 예배의 의례로 가다듬

을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극렬한 반대에 직면했던

바울은 '발의 티끌을 떨쳐 버리고'

다음

장소인 이고니온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으로 가서도 거기서 '돌로 치려

는 사람들에 대하여 저희가 알고 도망하

여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포기하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 현실에 대하여 행동적 테러리즘으로 맞서지도 않습니다. 박해만 있고, 실패만 있나요? 아닙니다. 안디옥, 이고니온. 두 곳에서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적 실천입니다. 실천적 예배입니다. 실천이 예배적으로 장엄해야 하고, 예배가 실천을 향하여 열려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포기하거나 과격한 테러리즘을 주장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창골산 봉목사 제공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장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열어갑니다



국토교통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팀을 하나 되게 하라

한 명의 리더가 그룹을 이끈다는 것은 그 그룹의 관계까지도 관리해야 함을 의미한다. 만약 예배인도자가 리더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예배 그룹을 이끌 때 그들 모두 예배 때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하나님께 한 제사를 올려드리게 할 수 있다면, 그가 이끄는 그룹은 함께 누리게 될 기쁨과 감격을 전보다 배나 더 누리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예배인도자는 먼저 예배팀이 갈등 없이 서로 의존하는 팀워크를 만들 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1. 비전 제시 :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가장 큰 도구

나는 예배팀에 소속된 사람은 누구나 다 감성이 풍부한 예술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먼저 내가 이들의 감성이 풍부하다고 믿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음악을 통해 평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며, 예술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이유는 그렇게 믿어야 최소한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예배팀에 소속된 이 예술가들은 일반적으로 교회 내 다른 성도들보다 감정적으로 좀 더 민감해져 있을 때가 자주 있다. 그러나 보니 외부에서 보기에는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들이 이들



에게는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다. 예배팀원들 간의 갈등이 빈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예배인도자가 팀 내에서 팀원들 간에 갈등이 생길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인도자의 위치이다. 만약 예배인도자가 팀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나치게 방관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종재자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다 보면 갈등이 풀리더라도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도자를 많이 의식하게 된다.

따라서 예배인도자는 팀원들 간의 갈등을 발견할 때 그 갈등의 내용이 인도자 자신과 관계된 내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당시자들이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2. 리더의 고립 : 서로 의존하는 팀워크 조성

행정은 교회를 운영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위해 지나치게 방관하거나, 아니면 어느 그룹이든 그 그룹의 탑 리더(Top Leader)는 최소한의 행정적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리더에게는 자신을 따르는 하부조직원들과의 관계에서 타월한 행정이 요구된다. 사실 행정을 모르는 대다수의 한국교회 리더들은 자신의 부교역자들과 관계를 유지할 때 문어발 행정 방식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문어의 대가리를 탑 리더라고 할 때 모든 부리더들은 그 탑 리더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서로 간의 관계에서는 어색하거나 무언가 중요한 아이디어들이 공유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는 정치적으로 공산주의 체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문어발식 행정의 유익이 있다면 모두 리더에게 잘 보이려고 애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은 큰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팀원들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성이 사라지고 서로를 지나치게 경계하고 감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배인도자는 팀원들 간의 갈등을 발견할 때 그 갈등의 내용이 인도자 자신과 관계된 내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당시자들이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것은 주로 비전을 재확인시켜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 앞에 두고 있는 예배나 행사에 대한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도록 하는 일이다.

만약 그런 방법으로 이들의 갈등이 해결되면 자신들이 갈등했던 부분에 있어서 리더를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리더 역시 그 부분에 깊이 들어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언제나 팀원들이 바라보는 곳이 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게 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고 좋은 팀워크를 만드는 비결이다.

따라서 예배인도자는 팀원들 간의 갈

예배인도자 또한 다른 여느 리더들과



같이 문어발식 행정을 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많이 있다. 나는 어느 교회에 가봐도 예배팀원들 중에 누군가는 리더의 곁에 서려고 하거나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본다. 그럴 때 인도자가 실수하기 쉬운 한 가지는, 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다. 그러나 보면 다른 팀원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기도 하고, 간혹 리더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 리더의 측근이 팀원들로부터 적지 않은 오해를 받게 되기도 한다. 예배인도자인 당신이 정말 그 형체나 자매를 주 안에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다른 팀원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어야 한다. 그 방법은 인도자가 그 사람과 약간

의 관계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다.

평신도 예배인도자가 자주 착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자신은 아직도 수많은 회중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하며 자신이 하는 가벼운 행동이나 말이 다른 여느 성도들이 할 때처럼 교회가 크게 주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아무리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한 그룹의 예배를 인도하는 위치에 있다면, 스스로 자신의 리더라는 위치가 이름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는 '사역자(Minister)'이다.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고립'을 동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리더의 고립은 어쩌면 하부 조직의 단단한 결속을 흔들어놓을 수도 있다. 그럴 때 그 리더가 그 자리를 비우게 되는 상황이 올 때도 결코 팀워크가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예배인도자는 예배팀원들 간의 단단하고 끈끈한 영적 관계를 형성해주는 데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때때로 예배인도자는 팀원들 서로가 리더를 의존하게 하기보다는 서로를 의존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그 리더가 그 자리를 비우게 되는 상황이 올 때도 결코 팀워크가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예배인도자는 예배팀원들 간의 단단하고 끈끈한 영적 관계를 형성해주는 데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존재이다.

◆고옹일 목사

영남신학대학원과 동 대학원에서 기독교교육학과 신학을 전공하고, 미국 풀러신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졸업하였다. 전 풍성한교회 찬양디렉터로 사역했던 그는 한국, 미국, 중남미에서 다년간 한인교회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교회적 상황에 따른 예배사역의 노하우들을 터득하였으며, 그 외에도 중국, 일본 및 중남미 지역을 다니면서 각 나라 언어로 선교 집회 찬양을 인도해왔다.

『꿈꾸는 예배 인도자』의 저자이며, 현재 미국 LA 카운티 지역에 소재한 주안예교회에서 예배사역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모양인데 어디 통할 일입니까! 같은 경험에 있는 선배로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가 찾은 것은 젖이 아니라, 바로 엄마야!"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 성 여인의 대화에서 여인의 관심은 예배하는 장소, 시간 등 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예배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what)이 아니라 '누구'(who)입니다.

영적인 찬양은 드리는 찬송, 즉 음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드리는

자기 마음가짐과 자세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와 찬양에 대해 "내

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

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고전 14:15)고 언급하고 있

습니다. 이 말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

인 표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대 크리

스천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들의 심령은 무지와 습관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경건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실제의 모습은 하나님 밖에서 역사나 전통을 고수하는 자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경건한 음악을 찾기 위해 고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고전

이란 무엇이며, 고전시대에 음악을 만든

크리스천들이 추구했던 경건 사상과 현

대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경건 사상의 본

질은 서로 다른 것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그때의 음악은 성경이 말하는 음악 형식

과 동일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특정 시대의

작품 스타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원하시는 변화된 심령으로 드릴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전통을 고수하는

자, 경건의 모양만을 갖춘 보수주의자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

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내적 보수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20절은 음악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기에 앞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는 영적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첫 구절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는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진정)와 이해(마음) 없이는 찬양의 가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로 드리는 찬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드리는 심령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찬양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어느 하나님도 결핍된 찬양은 균형을 잃어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에는 신령과 진정의 균형이 요

구됩니다. 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영적인 찬양은 음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자세는 진지하고 열정적이어야 하며, 또한 진리에 기초해야 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보기에 아름다운 찬양이라 하더라도 드리는 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인 '신령과 진정' 밖이라면 쓸데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심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 까?

◆김남수 교수

미국 남침례신학대학원에서 교회음악석사와 박사를 취득하고, 침례신학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음악총주사)과 『코랄 앤딩이 있는 찬송 데스칸트』(미완성출판사)를 작곡하여 출판했으며 『서쪽 하늘을 봄은 노래』(새찬송가 158장) 외에 여러 교회음악을 작곡했다. 『교회와 음악 그리고 목회』(요단출판사), 『예배와 음악』(침례신학대학 출판부), 『숨겨진 찬송이야기』(아기페북스) 등을 저술하여 교회음악지도자들이 알아야 할 메시지들을 나누고 있다.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대한제지

‘의숙한 찬양’이 ‘새로운 옷’을 입어 더 좋은 앨범 5가지

평소에 흥얼거리거나 예배에서 불러 너 무나도 의숙한 찬양들이 새로운 편곡과 만나 더 좋아진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새로운 옷을 입어 더 좋은 찬양들이 수록된 앨범들을 추천해 보고자 한다.

◆나비워십 ‘Jesus is Rock’

작년 9월 발매된 ‘나비워십’ 2024 이곳에서 이어 나비워십이 1년 만에 라이브 워십앨범 ‘Jesus is Rock’을 내놓았다. 그런데 ‘실로암’, ‘불을 내려 주소서’,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등 당장 지난 주에도 예배 시간에 불렀을 법한 찬양들로 트랙 리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꽉 채웠다.

자칫 의숙해져 그 음악을 잊기 쉬운 찬양 곡들로 하여금 새로움과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이 앨범에는 그 외에도 ‘예수 열방의 소망’, ‘성령의 불 탄는 교회’ 등을 나비워십의 시그니처 인 과감하고 힘찬 편곡과 세련된 연주, 열정적인 목소리로 노래했다.

워십리더인 김종윤, 이정기 목사와 함께 오랜만에 우미쉘 목사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어 반가운 앨범이다.

◆사랑의교회 캠송키즈 CCM 합창

‘꽃들도’, ‘사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예배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등등 당장 내 플레이리스트에 담아둔

가장 많이 듣는 CCM의 곡처럼 보이는 이 곡들이 하나의 앨범에 담겨 있다. 그것도 쉽게 들어 볼 수 없는 아이들이 부른 2부 합창으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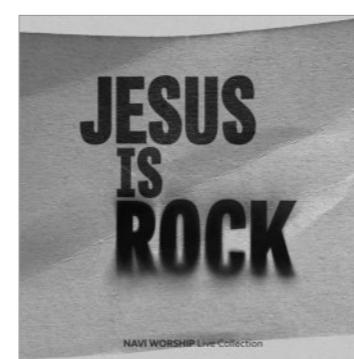
CCM 그룹 히즈윌(HisWill)의 작곡가이자 프로듀서로 ‘광야를 지나며,’ ‘믿음이 없어?’ 등의 명곡을 작곡한 장진숙 지휘자에 맞춰 사랑의교회 캠송키즈 멤버들이 순수한 목소리로 곱게 노래해 질릴 틈이 없다. 원곡들을 좋아하는 분들도 누구나 부담 없이, 그리고 새롭게 들을 수 있는 좋은 앨범으로 추천하고 싶다.

◆Michael W. Smith ‘Worship’

マイ클 W 스미스(Michael W. Smith, M.W.S)의 기념비적인 앨범 ‘Worship’은 CD로 만나기는 어렵지만 디렉티드 멜론과 유튜브 뮤직 같은 국내외 음원서비스에서 손쉽게 들을 수 있어 너무 반갑다.

팝스타에서 CCM 탑 보컬리스트로, 거기에 그와는 어울리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던 워십리더로의 성공적인 변신을 알렸던 앨범 ‘Worship’에는 ‘마음의 예배(The Heart Of Worship)’ ‘내 맘의 문을 여소서(open the eyes of My Heart)’,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Above all)’ 같은 너무나도 유명한 곡들이 M.W.S의 편곡과 목소리로 불리워 더욱 더 유명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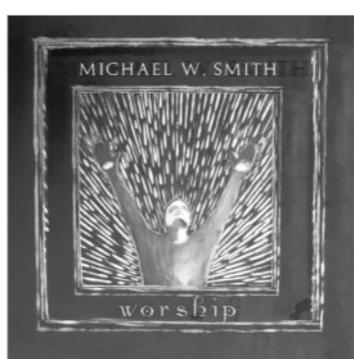
편곡과 연주, 유려한 워십 리딩과 진지



나비워십 ‘Jesus is Rock’



사랑의교회 캠송키즈 ‘캔송키즈 CCM 합창’



Michael W. Smith ‘Worship’



Steven Curtis Chapman ‘re:creation’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Champion Young People’

한 분위기까지 지금 들어도 무었 하나 빼 지지 않는 명반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 앨범도 꼭 들어 보시기를 권한다.

◆Steven Curtis Chapman ‘re:creation’ 이번엔 조금 다른 리메이크(Remake) 앨범을 소개해 본다.

스蒂븐 커티스 체프먼(Steven Curtis Chapman, S.C.O)은 1962년 생으로 1987년에 데뷔해 40년 가까이 사역하고 있는 베테랑 아티스트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활발하게 사역 중인 데 얼마전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올 겨울 크리스마스 투어 일정을 공개하기도 했고(그것도 아주 빠빠한), 올해에도 여러 신곡들을 발표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히트곡들을 들려줬는데 자신의

히트곡을 스스로 새롭게 리메이크한 앨범 ‘re:creation’을 추천한다.

최고의 CCM 아티스트로서 그의 음악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The Great Adventure’, ‘Dive’, ‘Speechless’, ‘Live Out Loud’가 그의 시그니처이기도 한 통통 튀는 일렉트릭 사운드가 아닌 어쿠스틱 버

코딩이 얼마 전 진행되었다는데 가장 마지막 앨범이 2022년에 발매되었던 ‘주님의 마음 있는 곳’이 이제 새로운 앨범을 전으로 ‘재창조(recreation)’되어 수록되었다.

단순히 어쿠스틱하게 연주했다기 보다는 각각의 곡에 딱 맞는 새로운 옷을 입은 듯한 느낌이 든다고 표현하는 것

어 있어 즐겁게 들을 수 있는 앨범이다.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Champion Young People’

예수전도단 화요모임의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께 희소식이 들려온다.

새로운 싱글 ‘성령 하나님’의 라이브 레코딩이 얼마 전 진행되었다는데 가장 마지막 앨범이 2022년에 발매되었던 ‘주님의 마음 있는 곳’이 이제 새로운 앨범을 기다릴 만큼 충분히 기다리지 않았나 싶다!

새소식은 그쯤해두고 오늘 소개할 앨범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지금도 선교의 주체로 부르고 계시며, 이 앨범을 듣는 모든 이에게 “챔피언”으로 쓰임 받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더해 추천해 본다.

님을 만나게 되기를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소개하는 앨범 ‘Champion Young People’이다.

두개의 트랙이 수록된 이 싱글 앨범에는 이지영 간사가 쓰고 부른 ‘아름다우신 영광’과 함께 지금까지 수없이 리메이크 된 로빈 마크(Robin Mark)의 명곡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Days Of Elijah)’이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특유의 강렬하고 모던한 편곡으로 수록되어 있다.

노래도 좋지만 주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위해 택했던 모세와 다윗처럼 지금도 주님의 일을 위해 택함 받기를 소망하는 이들이 “챔피언”으로 쓰임 받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더해 추천해 본다.

김진영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TV새벽예배 수령교회 4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시선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25 생방송 365 새벽기도	00 생명의 삶 2025년 11월 18일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3년 11월 18일 3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다시 보는 명설교 The율리(43회) 30 TV강단 하늘빛광성(박경수)	10 성경 속 전쟁사-에피소드 30 복음강단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 지구촌-김우준 30 생명의 말씀 덕천-김경년	20 할링스토리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10 [말씀]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165회) 50 [말씀] 권혁빈 목사(서드교회)(183회)	00 생명의 양식 정윤(유성택) 30 말씀의 능력(전태식)(557회)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노년당회(962회) 50 김운희 박사의 성경에선스 신약(29회)
	7:00 00 CTS뉴스 20 생명의 말씀 대전한빛-백용현 50 생명의 말씀 영광체일-이기웅	10 조정민 목사의 딥딥 20 사랑의 메시지 대치순복음교회 한별 목사 50 사랑의 메시지 원남교회 권기웅 목사	30 잊쉬의 서재(1회)	20 김동호 목사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492회) 40 찬양예배 주님께 말기는 시간!(1672회)	00 청주금천교회 주일예배실황 신경민 목사
	8:00 20 내가 매일 기쁘게 정은지 집사	20 김승욱 목사와 함께하는 신앙톡톡 30 체인지 더 월드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25년 11월 18일 2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651회)	00 하나님의 음성(85회) 20 CBS 성서학당 (김기식)(438회) 마태복음 5강	00 선교지에서 온 편지(13회) 케나오지에 심은 복음의 씨앗 40 김운희 박사의 성경에선스 50 믿음의 리액션(5회) 부산광역시
	9:00 10 두란노 성경교실: 예수로 읽는 성경 시편 8강 권수경 목사	30 비전설교 라이프처치 심성수 목사	00 [말씀] 홍민기 목사(라이트하우스무브먼트)(94회) 40 Q&A 107 소요리문답(47회) 50 신약의 세계로 오십소(14회)	10 새롭게 하소서(11365회) 개그맨 최홍립 1부	30 성자가 좋다(505회) 모세오경의 땅, 이집트를 가다 6부
	10:00 00 오마이갓생(4회) 20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원유경 목사	00 2025 다니엘 기도회	20 RE바이블(3회)	00 CBS NEWS 10 20 성지기족(12회)	00 내 삶의 행복(182회) 50 오정현 목사의 운전한 은혜로
	11:00 00 7000미라클 - 예수사랑여기에 스페셜 (서울역공동체교회, 이형준 목사 / 이원욱 목사) 5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00 사랑의 메시지 순복음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 30 비전설교 새문안교회 이상학 목사	10 [말씀]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250회) 50 예수동행일기(22회)	0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94회)	00 소문난 성경교실(583회) 주운석 목사 두 번째 5강 인생 후반 전의 믿음 : 혼자보다는 함께 3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502회) 50 복음강단 수원명성교회 유만석 목사
	12:00 00 CTS뉴스 20 신앙에세이 30 생명의 말씀 군포제일-권태진	00 GOODTV 뉴스 30 행복한 쉼터 풍성한교회 김성곤 목사	10 바이올 필름 <요한복음>(1회) 20 [말씀]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318회)	00 김신대 화요채플(57회) 30 TV강단 포이에미예수(신우인)	20 말씀의 친 은정감리교회 최상일 목사 50 비전메시지 콤온예배교회 이규호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 인양서부-전승환 30 [CTS 30년 믿음의 명작] 내 영혼의 찬양 회복	00 비전설교 중앙성결교회 한기제 목사 30 선교의 땅 나가사키를 가다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올(225회)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42회)	00 올포원(685회)	30 비전메시지 청주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
	14:00 00 [생방송] Calling GOD(2382회) 50 내가 매일 기쁘게 구자역 목사 & 신승주 사모	00 2025 다니엘 기도회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25년 11월 18일 2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835회)	00 말씀의 힘 수원목양(유태민) 30 새롭게 하소서(1102회) 공회 정지민 부부 1부	00 김삼환 목사의 칠 년을 허루같이(139회) 40 성경 속 전쟁사-에피소드
오후	15:00 40 7000미라클 - 예수사랑여기에 스페셜 (서울역공동체교회, 이형준 목사 / 이원욱 목사)	00 생명의 말씀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궁	00 [말씀] 김한요 목사(베델교회)(305회) 40 생명의 삶 2025년 11월 18일	20 CBS 성서학당 (신우인)(337회) 출애굽기 34강	00 선한목자교회 주일예배실황 김다위 목사
	16:00 30 생명의 말씀 분당횃불-이재희	00 횃불영 목사의 비전메시지 30 행복한 쉼터 평택성원교회 박충권 목사	00 하용조 목사의 오현복음 강해(61회) 40 바이올 필름 <요한복음>(1회) 50 [말씀] 도지원 목사(예수비전교회)(112회)	10 통박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29회) 5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94회)	00 오직주님 명성의 위심 김하나 목사
	17:00 00 수영로의 시간 이규현	00 솔직한 새끼양들의 토크쇼 저 새끼양 20 사랑의 메시지 충만한교회 임다윗 목사	30 [말씀] 박신웅 목사(얼바인온누리교회)(276회)	50 영혼의 양식_구세군대한본영	00 월드비전과 C채널이 함께하는 희망터치(29회)
	18:00 00 생명의 말씀 산본양문-정영교 30 부흥 어게인 여수 천연제일교회	00 리바이즈 헤리티지 10 행복한 쉼터 순복음정교회 김형근 목사 40 깊은 울림 한성 워십	10 휴먼네트(56회) 50 THE NEW 하늘빛향기(5회)	00 TV강단 윤인승전(김준호) 30 TV강단 여의도침례(국명호)	00 말씀의 창 출리씨즈교회 서대천 목사 30 고풍려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 차록(28회) 성경에 나오는 강력한 기도 베스트 5
	19:00 20 CTS스페셜 큐지컬 유다	00 장상길 목사의 성령의 짐짓비	30 구약의 세계로 <오신소>(1회)	00 이영후 목사의 땅끝까지 복음을(584회) 30 TV강단 용인비전(신용수)	00 비전메시지 개명교 김도경 목사 30 말씀의 창 영광교회 윤보한 목사
	20:00 30 생명의 말씀 송도나안-김의철	00 2025 다니엘 기도회 생방송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3년 11월 18일 20 CGN리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화요성령집회-(3회) 40 너답게-회복프로젝트(63회)	00 CBS비전특강 윤자복 목사의 종말론 특강 50 크리스천칼럼_인천제일(이제일)	00 오정현 목사의 운전한 은혜로(263회) 10 복음강단 오송하문화교 이자수 목사 40 말씀의 창 서울제일교회 최봉수 목사
	21:00 00 우리 교회는 지금(23회) 50 CTS뉴스	00 GOODTV 뉴스 20 GOODTV 시네마 누가복음 1부	00 상당교회 주일예배 2025년 11월 18일	00 CBS 성서학당 (김기식)(438회) 마태복음 5강 50 살롬 쌀롱(11회)	10 김하나 목사의 말씀강해(46회)
	22:00 20 두란노 성경교실: 예수로 읽는 성경 시편 8강 권수경 목사	2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50 다큐 더 러드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25년 11월 18일 3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페밀리(81회)	00 CBS NEWS 10 20 새롭게 하소서(11365회) 개그맨 최홍립 1부	00 C채널 매거진 굿데이(338회) 20 소문난 성경교실(580회) 주운석 목사 두 번째 2강 인생 후반전의 믿음 : 하나님과의 흙 50 김운희 박사의 성경에선스 구약(29회)
	23:00 10 CTS 30년 믿음의 명작 - CTS특집다큐 성자순례 메시아	10 행복한 쉼터 물맷돌교회 안호성 목사	10 카일 아이들만의 포도나무와 가지(6회) 40 생명의 삶 2025년 11월 18일 50 바이올 필름 <요한복음>(1회)	10 2024 한소망교회 감사 부흥회(9회) 50 찬양예배 주님께 말기는 시간!(1672회)	00 이성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23회) 50 오정현 목사의 운전한 은혜로
	24:00 00 Calling GOD(2382회)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				



자원영토 확장으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나갑니다

한국석유공사는 대한민국 동해 및 서·남해 지역에서 광범위한 석유탐사를 추진해 자원영토를 넓혀 나가는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석유공사는 에너지 수급에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 에너지 안보를 수호해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